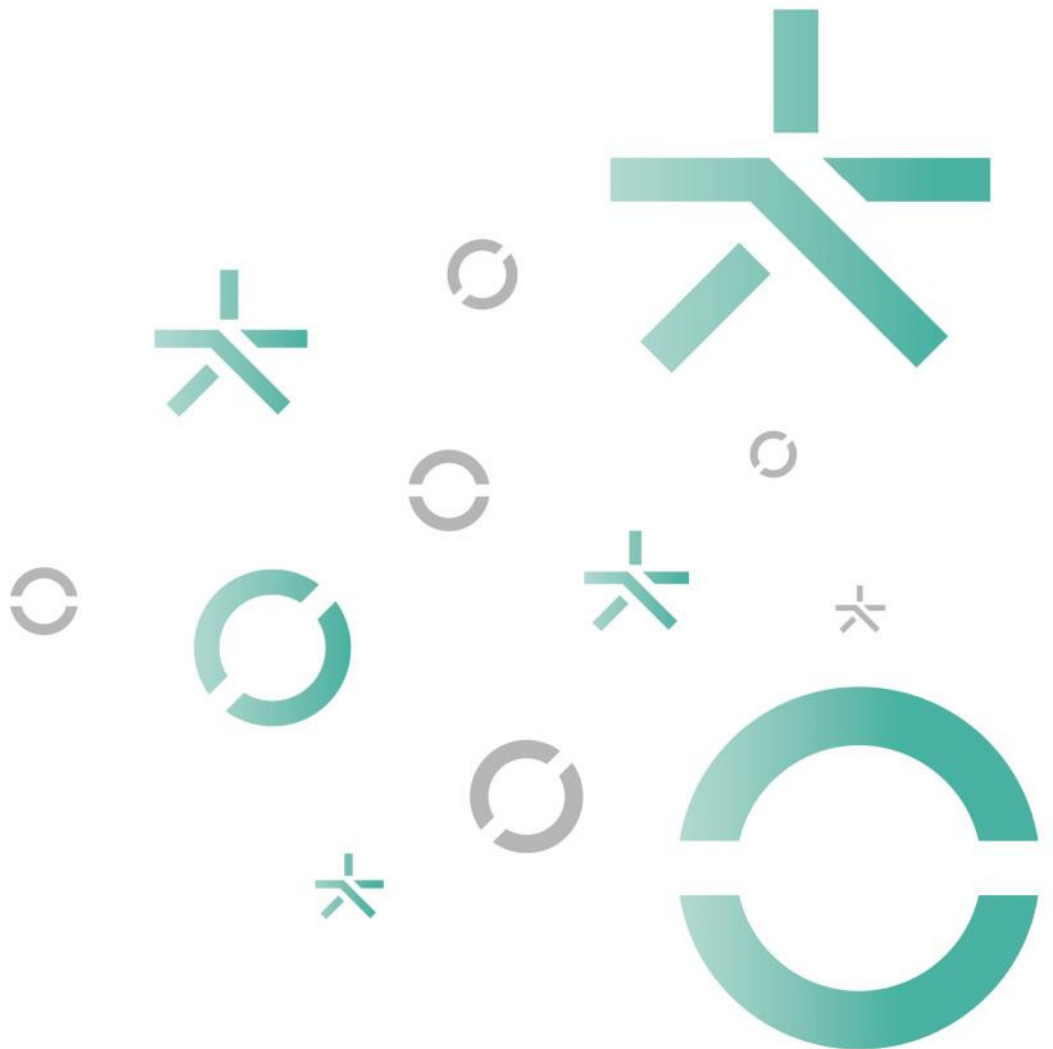


# 인천 안전도시 이미지 강화 정책 방안: 범죄 분야를 중심으로

안승현·조성윤



## 연구책임

안승현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센터장

본 연구 결과는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서론

- 최근 들어 빈번하게 들려오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마약 범죄’ 소식은 국민으로 하여금 잠재적 범죄피해의 공포를 더욱 크게 느끼게 하고 있음.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의 경우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해 미디어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나 피해장소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언제라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안전한 사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안전과 안심에 관한 관심, 그리고 더 나아가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인천시는 2022년 발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생활안전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교통사고, 화재, 자살 분야에서 2등급을 받으며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안전 관련 통계상의 지표와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안전도 사이의 간극으로 인하여 방법과 치안 수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만연하여 도시이미지가 실추되고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따라서 반복되는 재난안전 사고 소식에 의해 쉽사리 오명이 씌워지는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도시라는 도시의 이미지가 상징적인 이미지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기능적 이미지로 함께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인천시의 안전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도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천시의 도시이미지 및 안전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높고 적용가능성 있는 도시이미지 개선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2. 이론적 고찰

### 1) 도시와 도시경쟁력

- 모든 도시가 동일한 과정과 형태로 탄생·발전해온 것은 아니므로 도시를 보는 관점이나 분야에 따라 도시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연구자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임재현, 2023).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 기준은 인구적, 정치·행정적, 사회·문화적, 기능적, 그리고 시설·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인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도시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구 규모, 기능 등의 정태적인 기준을 충족하면서 이질적인 개체들 모여 개체 간 그리고 개체들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동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임재현, 2023).
- 도시는 상호 관련성을 가진 다양한 요소들이 조합되어 운영되는 유기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도시가 하나의 조직체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의 결합이 필요하며(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요소인 시민(citizen)과 활동(activity), 물리적 요소인 토지(land) 및 시설(facility)이 중요한 구성요소임(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 사회변화는 공간 개념의 변화를 통한 도시 역할의 확대, 초국적 교류 차원에서 도시정부의 위상 변화로 인한 국가 역할의 축소, 심리적 공간 압축 현상으로 인한 국가 간 경계 붕괴에 따른 세계도시의 중요성 강조, 정보와 지식의 입지 자유성으로 인한 도시 간 경쟁의 심화를 초래하였고(임재현, 2023), 도시의 위상 변화는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과거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일부분 이라고 인식되었던 시기를 지나 국가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다른 여러 국가의 지역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도시경쟁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음(김정호, 2013).
- 도시가 세계 경쟁력의 핵심적인 주체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OECD의 도시경쟁력 평가보고서가 계기가 되었고(변미리, 2014), 초기의 도시경쟁력 개념은 주로 시장의 효율성·생산성 측면에서 다루어졌으나,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학자마다 다양한 개념을 제시하게 되었음(변미리 외, 2021).

- 도시경쟁력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도시경쟁력이란 어떤 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생산과 삶의 질에 관계된 총체적인 역량으로 여타 도시에 대한 상대적 우위 정도라고 볼 수 있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특히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정치적, 사회·문화적 차원의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김원배, 1997; 김정호, 2013).
- 도시경쟁력에 대한 주요 이슈는 도시의 자율성 및 역할, 지방과 중앙 간 관계로서의 거버넌스,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영역으로 확장되었고, 최근에는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도시 내 불평등, 고령화,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대응과 같은 도시 역량 강화를 포함하는 보다 복합적인 차원의 도시경쟁력 이슈가 논의되고 있음(변미리 외, 2021).

## 2) 도시이미지와 도시마케팅

- 일반적으로 도시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Boulding(1956)은 도시이미지를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마음의 세계, 경험의 종합적 결과”라고 정의하였음(Boulding, 1956).
- 이후 Lynch(1960), Allport(1979), Kotler(1986) 등의 연구가 이어졌고(김훈·송윤환, 2007; 권재경·최원수, 2012), 다수의 선행연구를 종합했을 때 도시이미지란 사회, 경제, 자연, 문화, 관광 등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적 요소가 투영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경험, 지식, 그리고 신념의 총체적인 지각 및 심리적으로 인식된 주관적 마음의 세계라고 할 수 있음(김훈·송윤환, 2007; 문경원, 2013).
-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인은 크게 자연적 요소와 물리적 요소, 그리고 비물리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연적 요소에는 자연환경, 물리적 요소에는 건축물과 도시 외관, 상징물 등의 인공물, 끝으로 비물리적 요소에는 시민의 가치관과 도시의 역사성, 문화 등이 있음(이수범 외, 2004).
- 도시이미지를 도시민들이 도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험, 기대, 그리고 인상과 같은 총체적 요소들에 의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인지적 반응의 복합체라고

본다면, 이수범 외(2004)는 “도시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지역 정체성, 공동체 관계 등 비물리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총체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인으로서 도시이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음(이수범 외, 2004).

- 도시마케팅이라는 용어는 지역마케팅, 장소마케팅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엄밀히 구분하면 광의의 지역마케팅이라는 개념에 협의의 도시마케팅이나 장소마케팅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연구자들의 편의에 따라 혼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용 측면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함(임재현, 2023).
- 도시마케팅은 국외의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국내의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는데(서용모 외, 2010), 선행연구를 종합했을 때 도시마케팅은 도시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라는 인식하에 도시 구성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도시의 이미지, 제도, 시설 등에 대한 개발·개선을 통해 도시의 전체적인 자산가치를 높이는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시민들의 통합과 소속감 향상을 통한 자긍심의 고취, 도시 인지도 및 선호도 향상을 통한 관광객의 확보,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투자의 유치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임재현, 2023).
- 도시마케팅 전략은 도시의 비전, 기본방향, 기본목표의 설정과 이에 대한 전략 및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계획과정으로(서용모 외, 2010), 장소, 마케팅, 전략계획 개념이 결합된 도시경쟁력 향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음(이무용, 2006).

### 3. 안전도시와 주요 지표의 이해

#### 1) 안전도시

- 안전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개념으로 인식한 것은 1989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차 사고와 손상사고 학술대회(World Conference on Accident and Injury Prevention)였음(양문승·김자은, 2010; 강창현·문순영, 2017; 안승현, 2020).
-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선언을 통해 안전이 기본권임을 천명하고 궁극적인 목표를 손상 및 사고 발생을 감소시켜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역사회 내의 안전증진(safety community promotion)으로 규명하면서 ‘안전’이 사용되었고, “지역사회 내 안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어떤 수단들이 행해져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을 안전증진(safety promotion)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음(양문승·김자은, 2010; 강창현·문순영, 2017; 안승현, 2020).
- 지역사회 내 안전 증진을 하나의 개념으로 간주하면서 안전도시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는데, 이 시기 이전까지 안전도시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가 아니라 단순히 안전과 도시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사용되었지만 이후 안전도시는 하나의 용어로 개념화되어 이해되고 있으며 안전도시(safe community)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양문승·김자은, 2010; 강창현·문순영, 2017; 안승현, 2020).
- 지역 차원의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은 주로 안전도시 사업 또는 안전도시 인증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국제적으로 다양한 안전도시 인증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안전도시 사업이 수행되어 왔음.
- 국제적으로는 WHO의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Certifying Centre, Rockefeller 재단의 100 Resilient Cities, UNDRR의 MCR 캠페인 등이 있고, 국내에서는 2009년 안전도시 사업을 시작으로 안심마을 사업, 방재활동 우수마을 사업, 안전마을 사업,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이 시행되었음.

## 2) 주요 지표

-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에 따라 매년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을 공표하고 있는 제도로,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통하여 주민은 더 안전해지고, 안전사고 및 안전사고 사망자는 체계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행정안전부 홈페이지1)).
- 안전 관련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6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안전역량을 5개 등급으로 객관적으로 계량화한 정보이며, 안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유도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2010년부터 지역안전지수 제도 필요성 검토를 시작하여 2015년 첫 공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행정안전부 홈페이지2)).
- 체감안전도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찰에서는 체감안전도를 체감치안이나 치안체감도 등 이론상 범죄두려움을 역으로 치환한 형태에 가까운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내부만족도나 치안고객만족도 등 경영학이나 행정학의 고객만족도에 가까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음(정철우, 2015; 이병도, 2022).
- 이병도(2022)는 체감안전도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국민이 인식하는 안전에 대한 다양한 요인과 거주지역의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에 대한 복합적 지표”를 학술적 의미의 체감안전도라고 정의하였음(이병도, 2022).
- 치안만족도 조사는 경찰과 접촉한 시민들과 접촉하지 않은 시민들을 구분하여 실시한 경찰청 주관 전국 단위 설문조사로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2011년부터 경찰과 접촉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치안만족도 조사와 비접촉고객만을 대상으로 한 체감안전도 조사로 나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이병도, 2022).
- 범죄두려움의 개념과 측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관련 연구를 종합해보면 “범죄로부터 발생하는 정서적 반응 또는 범죄와 연관시키는 상징”(Ferraro & LaGrange, 1987)과 “정서적, 행동적,

1) <https://www.mois.go.kr/frt/sub/a06/b10/safetyIndex/screen.do>. 검색일: 2023. 12. 22.

2) <https://www.mois.go.kr/frt/sub/a06/b10/safetyIndex/screen.do>. 검색일: 2023. 12. 22.



인지적인 범죄에 대한 반응”(Ferraro & LaGrange, 1987; Ferraro, 1995; Pleysier, 2009)이라는 두 가지 정의로 나눌 수 있음(안재경·최이문, 2023).

- 인지적 차원으로서의 범죄두려움은 피해가능성과 피해 결과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범죄 발생을 예방하거나, 범죄상황 발생 시 특정 방향으로 행위하려는 반응과 감정을 포함하는 정서적 차원의 범죄두려움과는 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며(Warr, 1987; Ferraro, 1995; Jackson, 2011), 범죄두려움의 개념과 측정에 대해 논의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함(안재경·최이문, 2023).
- 국내에서 범죄두려움에 대한 조사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려움을 크게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음.
- 범죄두려움의 측정에 있어서 개념의 모호성, 감정 정도 측정의 어려움, 일관성 있는 기준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범죄두려움이 실제 발생하는 범죄현상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노성호·신소라, 2020; 안재경·최이문, 2023).

## 4. 인천시 안전 현황

### 1) 기본 현황

- 2021년 기준 인구는 2012년 대비 약 4.27% 증가하여 3,014,73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19년 고점 기록 후 소폭 감소하였고, 세대당 인구는 2012년 2.63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1년 기준 2.32명으로 향후 일정 기간 감소 추세가 예상됨.
- 2021년 기준 인구구조는 2017년에 비해 아동인구(14세 이하) 및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용도지역 총면적은 2021년 12월 기준 약 1,094.27km<sup>2</sup>이며, 이 중 도시지역이 47.30%, 비도시지역(관리지역)이 28.86%, 농림지역이 23.83%를 차지함.
- 2021년 기준 전국 지역총생산액은 2,083조 7,949억 원이며, 인천시는 98조 6,705억 원으로 전국 지역총생산액의 4.74%를 차지하고 있음.

- 사업체 수는 3차 산업의 비율이 80.60%로 가장 높으며,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3차 산업의 도매 및 소매업이 25.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종사자 수 또한 3차 산업의 비율이 71.28%로 가장 높으나,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2차 산업의 제조업이 20.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 안전 현황

- 2022년 기준 인천시의 범죄 분야 지역안전지수는 2등급으로 과거 4년 대비한 단계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수구의 경우 최근 5년간 계속 1등급을 기록하여 인천시 내 군·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최근 5년간 계속 4등급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강화군 또한 최근 5년 중 4년간 4등급을 기록하고 있어 지역의 범죄 분야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
- 그러나 미추홀구와 부평구에 대한 접근방식과 강화군에 대한 접근방식은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함.
- 최근 10년간 인천시의 범죄 통계를 5대 주요범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강도, 절도, 폭력의 경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살인의 경우에는 유지, 강간·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할서별로는 모든 범죄 유형이 미추홀서에서 가장 많이 집계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중요범죄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및 인천시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범죄에서 인천시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해봤을 때 오히려 인천시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인천시의 체감안전도 종합점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지자체의 점수 또한 상승하는 추세여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특히, 인천시 내의 10개 관할서 중 미추홀서의 경우, 다른 관할서가 절댓값에 있어서 위상향의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하여 최근 10년간 60점대 중후반에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점과 2023년 결괏값이 최하위이면서 가장 높은 지역과는 15.7점 차이, 평균값과도 8.4점 차이가 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5. 결론 및 정책제언

### 1) 진단

- 객관적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인천시의 전반적인 안전 현황은 안전도가 낮다고 평가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인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가 보여주는 것처럼 생활안전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등급이 2등급을 기록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범죄 분야도 2021년까지 지난 4년간 3등급을 유지해 오다가 2022년 2등급으로 상향되었음.
- 그러나 범죄와 관련한 주요 지표를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안전지수 등급과 달리 개별 지표들을 통해서는 범죄 분야의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인천시 내 군·구별로 안전 현황에 있어서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실제 안전 관련 지표의 격차보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검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첫째, 인천시는 안전한 도시지만 잘못 형성된 도시이미지로 인해 오명을 쓰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 둘째, 지나친 ‘스포트라이트 효과(spotlight effect)’를 극복하고 인천시만의 도시경쟁력 제고 전략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2) 제언

-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전략은 도시를 어떻게 브랜딩하고 마케팅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도시의 정체성을 분석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안전 분야에만 국한하여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입증받기 위해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 중 하나로 안전을 관리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함.

- 안전 측면에서의 도시이미지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단편적으로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도시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계획 수립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지역안전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등급이 낮은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는데,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는 범죄 분야보다 실제 시민들의 삶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불안 요소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기초질서의 확립 노력 및 유관기관의 안전 개선 노력의 시각적 노출에 의한 효과성을 검토하여 강화하여야 함.
-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① 범죄 예방과 관련한 중앙부처 지원사업 참여 및 광역자치단체 자체사업의 추진
  - ② 도시재생 연계 테마형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브랜드화
  - ③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내 안전 관련 지표 개선 노력

## 1 서론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
- 2. 연구목적 ..... 4
- 3. 연구범위 및 방법 ..... 4

## 2 이론적 고찰

- 1. 도시와 도시경쟁력 ..... 9
- 2. 도시이미지와 도시마케팅 ..... 16

## 3 안전도시와 주요 지표의 이해

- 1. 안전도시의 이해 ..... 25
- 2. 주요 지표의 이해 ..... 31

## 4 인천시 안전 현황

- 1. 기본 현황 ..... 39
- 2. 안전 현황 ..... 46
- 3. 소결 ..... 63

## 5 결론 및 정책제언

- 1. 진단 ..... 68
- 2. 제언 ..... 69
- 3. 한계 및 후속 과제 ..... 72

- 참고문헌 ..... 75

[표 2-1] 도시경쟁력 개념 .....	13
[표 2-2] 분석수준별 도시경쟁력의 주요 이슈 .....	14
[표 2-3] 도시이미지의 유형과 구성요인 .....	18
[표 2-4] 도시이미지와 마케팅 전략 유형 .....	21
[표 3-1] 복원력 있는 도시의 7가지 특성 .....	28
[표 3-2] 국내 안전도시 사업 비교 .....	31
[표 3-3] 지역안전지수 산출지표의 유형별 의미 및 통계 분류 기준 .....	32
[표 3-4]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산출지표 및 가중치 .....	32
[표 3-5]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범죄두려움 측정 문항 .....	36
[표 4-1] 최근 10년(2012~2021)간 인천시 인구 추이 .....	39
[표 4-2] 최근 5년(2017~2021)간 인천시 인구구조 현황 .....	40
[표 4-3] 2021년 용도지역 현황 .....	41
[표 4-4] 최근 10년(2012~2021)간 전국 및 인천시 지역내총생산 현황 .....	42
[표 4-5] 2021년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 .....	43
[표 4-6] 최근 10년(2012~2021)간 자연재난 피해 현황 .....	44
[표 4-7] 최근 10년(2012~2021)간 재해 유형별 피해 현황 .....	45
[표 4-8] 최근 6년(2016~2021)간 사회재난 발생 및 피해 현황 .....	45
[표 4-9] 최근 5년(2018~2022)간 인천시 지역안전지수(범죄) 등급 현황 .....	46
[표 4-10]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관할서별 5대 주요범죄(살인) 발생건수 .....	48
[표 4-11]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관할서별 5대 주요범죄(강도) 발생건수 .....	50
[표 4-12]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관할서별 5대 주요범죄(강간·강제추행) 발생건수 .....	52
[표 4-13]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관할서별 5대 주요범죄(절도) 발생건수 .....	54
[표 4-14]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관할서별 5대 주요범죄(폭력) 발생건수 .....	56
[표 4-15] 최근 10년(2013~2022)간 전국 중요범죄 발생건수 .....	58
[표 4-16] 최근 10년(2013~2022)간 전국 대비 광역시 중요범죄 발생건수 비중 .....	58
[표 4-17] 최근 10년(2014~2023)간 전국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종합) .....	60
[표 4-18] 최근 10년(2014~2023)간 인천시 관할서별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종합) .....	61

[표 4-19] 최근 5회(2013~2021) 전국 범죄두려움(일반적 두려움) 조사 결과 ..... 62

[표 4-20] 최근 5회(2013~2021) 전국 범죄두려움(구체적 두려움) 조사 결과 ..... 62

[표 5-1] 글로벌 도시경쟁력 평가체계의 안전 관련 지표 ..... 72

[그림 3-1] 2023년 체감안전도 조사 설문지 ..... 34

[그림 4-1] 최근 10년(2012~2021)간 인천시 인구 추이 ..... 40

[그림 4-2] 최근 5년(2017~2021)간 인천시 인구구조 추이 ..... 41

[그림 4-3] 최근 10년(2012~2021)간 전국 및 인천시 지역내총생산 추이 ..... 43

[그림 4-4] 최근 5년(2018~2022)간 인천시 군·구별 지역안전지수(범죄) 등급 추이 ..... 47

[그림 4-5]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5대 주요범죄(살인) 발생 추이 ..... 48

[그림 4-6]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관할서별 5대 주요범죄(살인) 발생 추이 ..... 49

[그림 4-7]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5대 주요범죄(강도) 발생 추이 ..... 50

[그림 4-8]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관할서별 5대 주요범죄(강도) 발생 추이 ..... 51

[그림 4-9]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5대 주요범죄(강간·강제추행) 발생 추이 ..... 52

[그림 4-10]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관할서별 5대 주요범죄(강간·강제추행)  
발생 추이 ..... 53

[그림 4-11]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5대 주요범죄(절도) 발생 추이 ..... 54

[그림 4-12]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관할서별 5대 주요범죄(절도) 발생 추이 ..... 55

[그림 4-13]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5대 주요범죄(폭력) 발생 추이 ..... 56

[그림 4-14]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관할서별 5대 주요범죄(폭력) 발생 추이 ..... 57

[그림 4-15] 최근 10년(2013~2022)간 광역시 중요범죄 발생건수 비중 추이 ..... 59

[그림 4-16] 최근 10년(2014~2023)간 전국 체감안전도 조사 종합점수 추이 .....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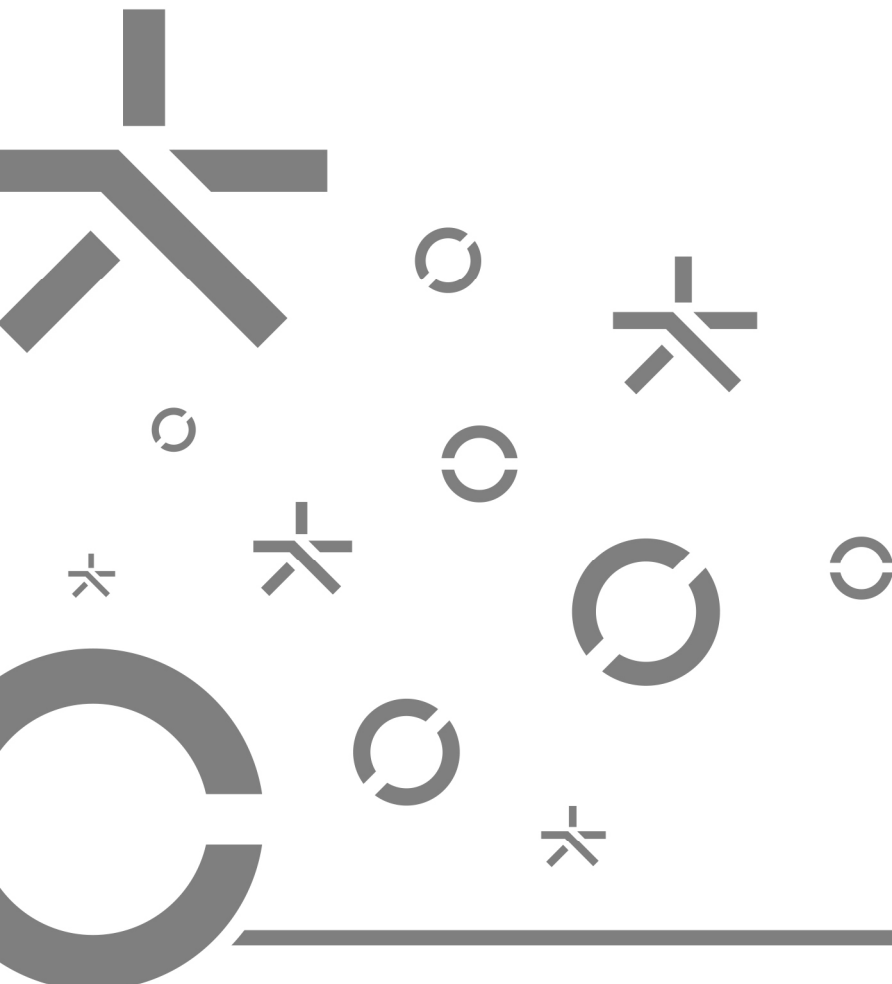
[그림 4-17] 최근 10년(2014~2023)간 인천시 관할서별 체감안전도 조사 종합점수 추이 ..... 61

[그림 5-1] 대전광역시 안전브랜드 상표등록증 ..... 71



1

# 서론





# 서론

---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묻지마 범죄’라고 불리는 이상동기·흉악범죄와 ‘마약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마약 관련 범죄 소식은 국민들로 하여금 잠재적 범죄 피해의 공포를 더욱 크게 느끼게 하고 있음.
-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의 경우 사회에 가해지는 충격의 크기로 인하여 미디어에 쉽게 노출됨에 따라 범죄자를 특정한 자아상으로 동일 시하는 모방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음.
- 미디어를 통해서 접했던 총기 난동 사건과 범행 도구만 다를 뿐 유사한 방식의 범죄가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던 나라가 마약 공화국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언제라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음.
- 최근 들어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안전한 사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각성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안전과 안심에 관한 관심, 그리고 더 나아가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안전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의 과정이자 결과로서 부여받은 안전도시라는 타이틀이 도시민들에게 안전과 안심,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인천시는 2022년 발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생활안전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교통사고, 화재, 자살 분야에서 2등급을 받으며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안전 관련 통계상의 지표와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안전도 사이의 간극으로 인하여 방법과 치안 수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만연하여 도시이미지가 실추되고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따라서 반복되는 재난안전 사고 소식에 의해 쉽사리 오명이 씌워지는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도시라는 도시의 이미지가 상징적인 이미지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기능적 이미지로 함께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인천시의 안전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 연구목적

- 도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천시의 도시이미지를 분석함.
- 인천시의 도시 특성 및 안전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이미지 개선 전략 마련을 위한 요인을 도출함.
- 장·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실효성 높고 적용가능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함.

## 3.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는 인천시 내 전 지역으로 설정함.
- 시간적 범위는 연구 기간 내(~2023. 12.)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함.
-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도시, 도시경쟁력, 도시이미지, 도시마케팅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함.
  - 범죄 분야 주요 안전 통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함.
  - 범죄 분야 주요 통계를 기반으로 인천시 안전 현황을 분석함.
  - 인천시 안전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를 제시함.

## 2) 연구방법

### ○ 문헌조사

- 도시의 이해를 위한 연구보고서, 논문, 언론 기사 등을 검토함.
- 인천시 도시 특성 및 안전 현황에 관한 연구보고서, 논문, 통계자료, 행정 문건, 언론 기사 등을 검토함.

### ○ 사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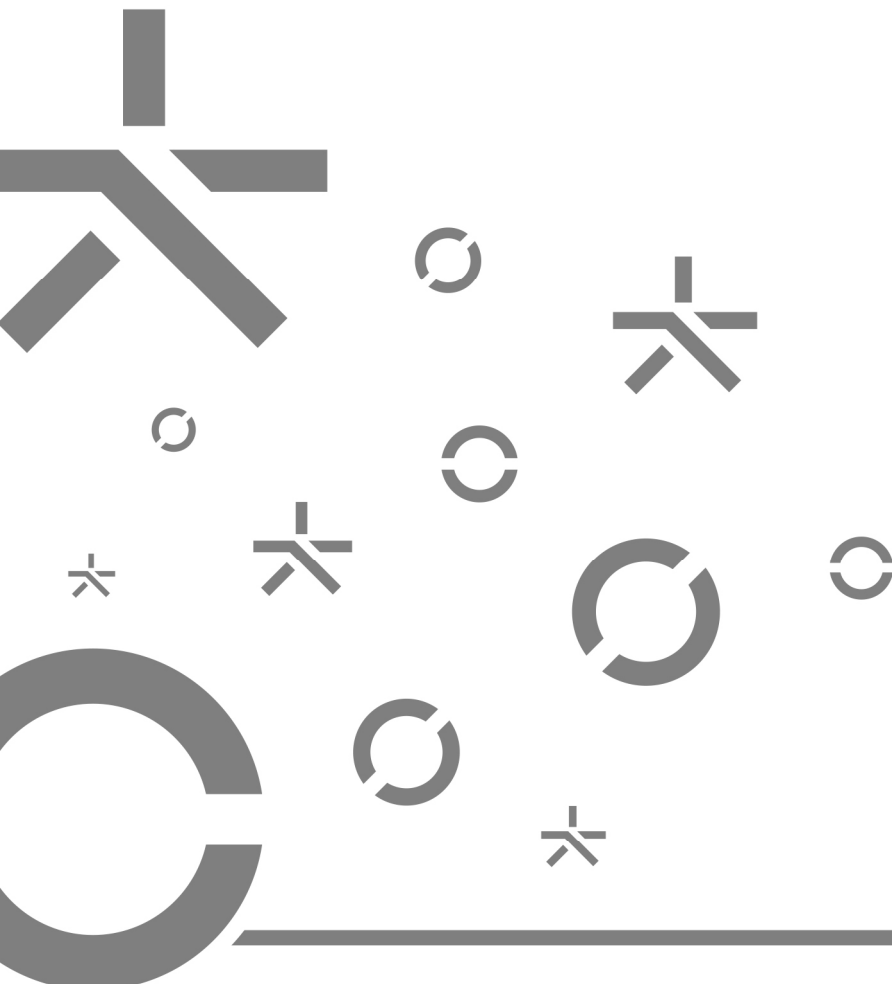
- 도시이미지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보고서, 행정 문건, 언론 기사 등을 검토함.

### ○ 전문가 자문

- 지역안전개선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도시이미지 개선 사례, 지자체 차원의 실현 가능한 전략 구상 방향 등 연구수행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함.



# 이론적 고찰







## 이론적 고찰

### 1. 도시와 도시경쟁력

#### 1) 도시의 정의 및 구성요소

- 우리가 사용하는 도시라는 말의 어원은 중국의 도성(都城)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후 시장(市場)의 기능이 도시의 주된 기능으로 추가되면서 도(都)와 시(市)의 복합어로 사용되었고, 도(都)가 의미하는 정치·행정 중심지, 시(市)가 의미하는 시장기능 중심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 영어의 'city'와 프랑스어의 'cité'는 모두 고대 로마의 '도시' 또는 '로마 시민권'을 뜻하는 'civitas'를 어원으로 하며, 서구 사회의 도시는 그리스의 도시국가 이후로 시민공동체 또는 시민 경제활동 중심지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임재현, 2023).
- 모든 도시가 동일한 과정과 형태로 탄생·발전해온 것은 아니므로 도시를 보는 관점이나 분야에 따라 도시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연구자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임재현, 2023).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도시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인구적 측면: 도시에 대한 정태적 기준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인구 규모에 의한 구분이며, 국가마다 도시와 비도시를 구분하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UN에서는 인구 20,000명 이상을 '도시지역(urban)', 100,000명 이상이면 '시(city)', 그리고 500만 명 이상이면 '대도시권(metropolises)'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읍(邑)은 20,000명 이상, 시(市)는 50,000명 이상이어야 함(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임재현, 2023).

- 정치·행정적 측면: 정치·행정적 기준에서 도시란 정치적 중심지 혹은 행정적 중심지를 의미하는데, Weber(1956)는 방위시설(defence setup), 시장(market), 독립된 재판소(court), 결사체 조직, 자율권 등이 내재해 있는 밀집된 주거지역을 도시로 인식하면서 서양의 도시는 시장 중심지, 동양의 도시는 정치·행정 중심지의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하였음(임재현, 2023).
- 사회·문화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의 도시는 주로 공업적 또는 상업적 영리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주민으로 구성되고, 인공환경의 우월, 인구 구성의 이질성, 사회 계층화의 심화, 유동성 및 익명성이 강한 곳으로 정의할 수 있고, 문화적 측면에서의 도시는 다양한 생각과 사고가 만나는 터전으로서 새로운 사상을 담는 창고이며, 다양한 거주형태와 사회적인 공간 배치로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나가는 토양이 되는 곳으로 정의되고 있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 기능적 측면: 도시는 사회제도의 중심부로서 정치·행정조직·종교 등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고, 농업과 공업 생산물을 거래하는 시장의 중심지 기능, 상업활동, 교통, 문화 등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며, 최근 들어서는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통신의 중심지 기능 또한 강조되고 있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 시설·환경적 측면: 시설적인 측면에서 도시는 도로, 상·하수도, 건물군, 기타 물리적 시설이 집적된 곳이며, 시민들의 삶을 위해 생활환경이 계획적으로 정비된 공간으로 다양한 고도의 인간활동을 담는 그릇으로서 공통적인 인공적·물리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들은 도시경관적 측면에서 도시를 구분하고 규정하는 뚜렷한 요소가 될 수 있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 종합하면, 도시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구 규모, 기능 등의 정태적인 기준을 충족하면서 이질적인 개체들 모여 개체 간 그리고 개체들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동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임재현, 2023).
- 이처럼 도시는 상호 관련성을 가진 다양한 요소들이 조합되어 운영되는 유기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도시가 하나의 조직체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의 결합이 필요함(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도시는 사회·문화적 요소와 물리적 요소로 구성되며, 사회·문화적 요소로는 시민(citizen)과 활동(activity), 물리적 요소로는 토지(land) 및 시설(facility)이 있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 시민(citizen): 시민은 개개인으로 본 인간이기도 하고 인간의 집합인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며,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도시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함(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 활동(activity): 도시라는 지역사회에 모여 사는 시민은 개개인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 또한 하게 되며, 이러한 활동에는 주거활동, 경제활동, 문화·여가활동 등이 포함되고, 다양한 활동을 연계해 주는 교통·통신활동, 여러 활동을 조정·관리해 주는 공공부문의 행정활동 역시 도시 내 활동을 구성하게 됨(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 토지(land) 및 시설(facility):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활동을 수용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각종 시설과 공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토지와 시설들이 도시공간에서 물적으로 나타나면서 도시 형태를 만들게 됨(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 세계화, 정보지식화, 지방화와 같은 사회변화는 경쟁사회, 즉 개방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환경변화에의 신속한 대응과 적응은 국가와 지역의 생존과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도시 또한 이러한 변화에 도시 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어 있음(임재현, 2023).
- 실제 이러한 사회변화는 공간 개념의 변화를 통한 도시 역할의 확대, 초국적 교류 차원에서 도시정부의 위상 변화로 인한 국가 역할의 축소, 심리적 공간 압축 현상으로 인한 국가 간 경계 붕괴에 따른 세계도시의 중요성 강조, 정보와 지식의 입지 자유성으로 인한 도시 간 경쟁의 심화를 초래하였음(임재현, 2023).
- 도시의 위상 변화는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과거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일부분이라고 인식되었던 시기를 지나 국가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다른 여러 국가의 지역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도시경쟁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음(김정호, 2013).

## 2) 도시경쟁력의 개념 및 주요 이슈

- 도시가 세계 경쟁력의 핵심적인 주체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OECD의 도시경쟁력 평가보고서가 계기가 되었고, OECD는 생산성 측면에서 대도시·인구밀집 지역이 규모의 경제, 집적경제, 특화 및 다양성 등의 이유에서 국가경제에서 도시경제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도시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분석하였음(변미리, 2014).
- 이처럼 초기의 도시경쟁력 개념은 주로 시장의 효율성·생산성 측면에서 다루어졌으나,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학자마다 다양한 개념을 제시하게 되었음(변미리 외, 2021).
- 김정호(2013)는 초기 도시경쟁력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며, “도시나 지역도 인구, 자본, 관광, 이벤트 등을 위해 경쟁을 하며, 하부구조, 삶의 질, 유연한 토지 및 부동산 시장,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 민주적인 지역거버넌스 시스템 등에 의하여 경쟁력이 좌우된다”라는 Porter(1995)의 주장과 “도시나 지역은 경쟁을 하지 않으며, 경쟁하는 기업과 회사를 위한 장소일 뿐”이라는 Krugman(1996)의 주장이 대립하였으나, 경쟁하는 기업과 회사를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거나 기업과 회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지역의 경쟁력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도시나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존재하며, 도시나 지역은 경쟁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Porter, 1995; Krugman, 1996; 김정호, 2013).
- 도시경쟁력의 다양한 개념을 살펴보면, 김현주(1997)는 “도시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인간개발로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타 도시에 비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고, 정진호(1995)는 “한 지역의 정부, 기업, 주민이 경제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동태적 역량의 내부효율과 외연능력에 관한 상대적 비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김원배(1997)는 “경제적인 초점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차원에서 정의되고 이해되어야 하며, 도시의 고유한 입지우위인 입지적 자산에 근거하여 기반역량이 상호 환류과정을 거치면서 장소적으로 내재화된 핵심역량”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최유진·홍준현(2007)은 “광의적으로는 한 지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동원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과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기업, 도시 주민이 개별적으로 혹은 삼위일체가 되어 만들어 내는 창출요소로서 도시의 산업경쟁력, 도시사회의 인적 자원과 통합력 등 도시의 총체적 잠재력이며, 협의적으로는 도시의 내부효율과 외연능력이 타 도시보다 우월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음(정진호, 1995; 김원배, 1997; 김현주, 1997; 최유진·홍준현, 2007, 김정호, 2013; 변미리 외, 2021).

- 이 외에도 도시경쟁력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2-1] 도시경쟁력 개념**

학자(연도)	개념
정진호 (1995)	한 지역의 정부, 기업, 주민이 경제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동태적 역량의 내부효율과 외연능력에 관한 상대적 비교
김원배 (1997)	경제적인 초점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차원에서 정의되고 이해되어야 하며, 도시의 고유한 입지우위인 입지적 자산에 근거하여 기반역량이 상호 환류과정을 거치면서 장소적으로 내재화된 핵심역량
김현주 (1997)	도시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인간개발로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타 도시에 비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정도
Lever & Turok (1999)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개발을 촉진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실질적인 수입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보다 넓은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정도
Webster & Muller (2000)	재화와 서비스 등의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도시지역의 능력으로, 다른 도시지역의 상품과 비교하여 좋은 가치(꼭 낮은 가격을 의미하지는 않음)를 의미하고, 경쟁력은 기업의 안전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능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
Saskia Sassen (2002)	글로벌도시화론에서 세계도시를 세계 경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행하는 장소이며, 세계자본이 집중되고 축적되는 장소라고 정의
박재길 외 (2005)	삶의 질이 높고, 기업하기 좋으며, 혁신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시민과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종합적인 능력
OECD (2006)	시민들의 노동생산성,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 경제적 성과에 기반하여 파악
최유진 & 홍준현 (2007)	(광의) 한 지역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원 가능한 인적·물적자원과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기업, 도시주민이 개별적으로 혹은 삼위일체가 되어 만들어 내는 창출요소로 도시의 산업경쟁력, 도시사회의 인적자원과 통합력 등 도시의 총체적 잠재력 (협의) 도시의 내부효율과 외연능력이 다른 도시보다 우월한 상태
강승호 & 김종엽 (2009)	포괄적인 차원에서 도시경쟁력을 도시경제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의 위상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다른 도시에 비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정도
김봉진 (2012)	도시별로 특화된 산업 또는 산업군에 기반을 두며, 지속적인 도시 관리를 통한 도시매력의 증진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도시민의 삶의 질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
WEF (2015)	도시의 지속가능한(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 포괄) 생산성 수준을 결정하는 정책, 기관, 전략, 과정 등 요인의 집합체

자료(출처): 김정호(2013); 변미리 외(2021); 임재현(2023)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

-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즉, 도시경쟁력이란 어떤 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생산과 삶의 질에 관계된 총체적인 역량으로 여타 도시에 대한 상대적 우위 정도라고 볼 수 있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특히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정치적, 사회·문화적 차원의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김원배, 1997; 김정호, 2013).
- 도시경쟁력에 대한 주요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초기에는 주로 경쟁력의 주체가 국가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후로는 도시의 각 영역에서 경제적 차원의 경쟁력 제고 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변미리 외, 2021).
- Webster and Muller(2000)는 도시경쟁력을 다룬 다양한 문헌들을 검토하여 도시경쟁력 개념을 분석단위 수준으로 구분한 후, 해당 연구들이 어떤 분석수준에 위치해 있고 강조하고 있는 이슈들이 무엇인지를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음 (Webster & Muller, 2000; 변미리 외, 2021에서 재인용).

[표 2-2] 분석수준별 도시경쟁력의 주요 이슈

분석수준	연구기관/연구자	도시경쟁력의 주요 이슈
Mega	European Commission, 1999	경제역량 중심: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Macro	Porter, 1990; Dollar & Wolf, 1993; Bramezza, 1996; Van den Berg & Braun, 1999; Harvey, 1989; Webster & Muller, 2000; Kaldor, 1970; Rowthorn, 1999; World Economic Forum, 2005 외	경제역량과 삶의 질: 소득, 삶의 질, 고용의 질 등
Mezo	Bryan, 1994; Markusen, 1992; Blunck, 2006	생산성
Micro	Casson, 1991; Rugman & Hodgetts, 2001; Faulkner & Bowman, 1995; Porter, 1998; Hamel & Prahalad, 1990; Stalk, 1992; Hill & Jonesm, 1992; Blunck, 2006; Chikan, 2001; Tyson, 1993 외	생산성과 효율성

자료(출처): Webster & Muller(2000); 변미리 외(2021)에서 재인용

- 이후 도시경쟁력에 대한 주요 이슈는 도시의 자율성 및 역할, 지방과 중앙 간 관계로서의 거버넌스,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영역으로 확장되었고, 최근에는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도시 내 불평등, 고령화,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과 같은 도시 역량 강화를 포함하는 보다 복합적인 차원의 도시 경쟁력 이슈가 논의되고 있음(변미리 외, 2021).
- 도시경쟁력의 개념과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는 도시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논의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초기 OECD 주도의 평가체계는 주로 도시경쟁력을 중심으로 생산성 측면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는 체계로서 사회경제적 불균등과 불평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이후 1980년부터 다양한 도시경쟁력 평가지표들이 생산되고, 특히 2000년대 이후로는 중국사회과학원이나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와 같은 도시연구소나 Mercer, AT Kearney, EIU, Arup, Arcadis 등과 같은 민간 컨설팅 기업 등에서 도시경쟁력 평가체계를 발표하면서 도시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삶의 질, 회복력 등 도시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음(변미리, 2014; 변미리 외, 2021).
- 특히, 도시경쟁력을 평가하는 최근의 흐름에서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평가체계가 도시공간의 삶의 질과 관련한 지표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의 역량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임.
- 변미리(2014)는 도시경쟁력 평가체계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분석·종합한 결과, 도시경쟁력 측정의 최근 트렌드(trends)가 “도시경쟁력이란 사람들이 머물러 살만하며,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고 투자하는 도시를 측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요소로서의 물가 수준(주거, 식품 안전성), 안전성(치안, 재해, 재난), 편리성(교통 및 물류), 쾌적성(환경, 대기, 녹지, 물, 쓰레기 등), 건강성(의료체계, 스포츠·레저 등), 사회적 통합성(이웃, 공동체, 양극화, 고령화 문제, 갈등 문제, 사회적 용인의 수준), 문화적 다양성(문화시설, 문화활동, 문화적 향수 수준의 고양, 도시적 다양성, 문화 기반 등), 개인 생애주기의 안정성(사회적 안전망 현황 등)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음(변미리, 2014).

## 2. 도시이미지와 도시마케팅

### 1) 도시이미지의 개념 및 구성요소

- 어떤 실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실체 자체에 대한 물리적 속성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체가 주는 이미지라는 사실 때문에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이미지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실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회피나 경시를 유발하고 긍정적 이미지는 호의를 유발할 수 있음(김훈·송윤환, 2007).
- Kotler(1982)는 “한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 갖는 신념, 아이디어, 인상의 총체”라고 이미지를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감각적인 경험이 뇌에 새겨진 표상 또는 지각, 특히 연상을 통해 느껴진 감각적 인상을 말한다고 주장하였고(Kotler, 1982; 김훈·송윤환, 2007에서 재인용), Boorstin(1962)은 이미지를 “가(假)의 개념”이며, 특정 사건에 대해 진실한 면을 보여주기보다는 조작되고 단편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고 정의하며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음(Boorstin, 1962; 김훈·송윤환, 2007에서 재인용).
- 일반적으로 도시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Boulding(1956)은 도시이미지를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마음의 세계, 경험의 종합적 결과”라고 정의하였음(Boulding, 1956).
- 이후 Lynch(1960)는 ‘도시이미지(The Image of the City)’라는 저서를 통해 “도시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가진 도시가 되어야 하며, 도시는 사람에 의해 이미지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Allport(1979)는 “집단에 대한 이미지가 도시 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형성될 경우 그것이 도시이미지”라고 정의내렸음(김훈·송윤환, 2007; 권재경·최원수, 2012).
- Kotler(1986)는 지역이미지를 “한 사람이나 집단이 대상지역에 대하여 갖는 일련의 신념”으로 정의하며, “사람들이 실제보다 더 잘 보이주기를 기대하는 결과로서 야기된다”라고 주장하였고, 임창호(1995)는 도시이미지란 “도시의 개별적 부분(개별건축물, 자연환경, 자연경관 등)들이 갖는 이미지가 총체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것 즉, 각 개인이 도시의 각 부분을 자신과의 물리적 상호관계 속에서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도시 자체를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정형화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김훈·송윤환, 2007; 권재경·최원수, 2012).



- 이처럼 도시이미지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도시이미지란 사회, 경제, 자연, 문화, 관광 등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적 요소가 투영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경험, 지식, 그리고 신념의 총체적인 지각 및 심리적으로 인식된 주관적 마음의 세계라고 할 수 있음(김훈·송윤환, 2007; 문경원, 2013).
- 다만, 도시이미지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개념 중에는 도시브랜드 이미지가 있는데, 이는 도시의 심상(imageability)을 나타내는 도시이미지와 개념적 동질성으로 인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이우중·김남정, 2005).
- 이우중·김남정(2005)은 “도시브랜드 이미지는 도시 간 경쟁상황을 기초로 함에 따라 이미지 유형의 범위가 특정 도시 내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른 도시와는 다른 상대적 도시이미지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도시이미지에 대한 접근은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지만, 도시브랜드 이미지는 도시환경의 상품적 가치에 주목하여 도시이미지가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어떠한 독특성과 호의성 등을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브랜드 이미지와 도시이미지는 단어의 사용 환경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함(이우중·김남정, 2005).
- 그러나 도시이미지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해당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고,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 또한 도시 간 경쟁상황 속에서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지를 도시안전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목적과 어떻게 하면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도시이미지 개선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목적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밀한 차원의 학술적 개념 논의는 생략하고자 함.
-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인은 크게 자연적 요소와 물리적 요소, 그리고 비물리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연적 요소에는 자연환경, 물리적 요소에는 건축물과 도시 외관, 상징물 등의 인공물, 끝으로 비물리적 요소에는 시민의 가치관과 도시의 역사성, 문화 등이 있음(이수범 외, 2004).
- 도시이미지와 관련한 대다수의 연구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도시이미지 연구와 공간, 건축물, 장소, 조형과 같은 물리적 요소가 도시 외관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이미지를 도시민들이 도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험, 기대, 그리고 인상과 같은 총체적 요소들에 의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인지적 반응의 복합체라고 본다면, 이수범 외(2004)는 “도시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지역 정체성, 공동체 관계 등 비물리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총체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인으로서 도시이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음(이수범 외, 2004).

- 따라서 도시이미지는 크게 물리적 실체로서의 이미지와 이념적 상징으로서의 이미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구분에 따른 구성요인과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권재경·최원수, 2012).

[표 2-3] 도시이미지의 유형과 구성요인

유형	구성요인	구성요소
실체적 이미지	도시시설, 건축물	기념물, 박물관, 교통시설, 기반시설, 랜드마크 등
	자연환경	해변, 바다, 기후, 소음 등
	도시공간, 장소	광장, 활동/거주 공간, 지역, 건축물, 특정 공간 등
	도시환경	연속경관, 산업구조, 스카이라인, 공간질서 등
상징적 이미지	역사성	전통, 관습, 역사적 맥락, 시간적 연속성
	도시생활기반	즐거움, 물가, 범죄, 친절성, 라이프스타일
	도시기능	위치, 크기, 도시명칭, 상징성
	외적이미지	활력, 쾌적, 밝음, 안전

자료(출처): 김남정(2005); 권재경·최원수(2012)

## 2) 도시마케팅의 개념 및 전략

- 각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과 문화를 통해 도시를 홍보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도시를 마케팅의 대상으로 접근하여 행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음(서용모 외, 2010).
- 마케팅이란 소비자의 욕구를 밝히고, 그 욕구를 충족시킬 제품을 개발하며, 상품이 주는 편익을 개인이나 조직에게 소개·전달하고, 적절한 시장으로 유통시키는 것으로 (이성근 외, 2021), 상품과 용역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원활히 이전하기 위한

비즈니스 활동을 말하며, 최근 들어서는 어떤 잠재적인 욕구를 자극하여 표면상으로 이끌어내는 행위나 동기로 그 정의가 변화하여 사용되면서 용어의 범위가 시장에서 벗어나 일상의 행위로 확대되었음(임재현, 2023).

- 도시마케팅이라는 용어는 지역마케팅, 장소마케팅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엄밀히 구분하면 광의의 지역마케팅이라는 개념에 협의의 도시마케팅이나 장소마케팅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연구자들의 편의에 따라 혼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용 측면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함(임재현, 2023).
- 도시마케팅은 국외의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국내의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음(서용모 외, 2010).
- Griffiths(1995)는 도시마케팅을 “도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 정체성을 회복하고 소속감, 애향심 등을 확립하여 주민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유도하고, 새로운 문화산업 개발을 통해 도시 회생의 수단으로 삼으며, 도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여 기업고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서용모 외, 2010), 유승권(2006)은 “도시의 유·무형 자산과 이러한 자산을 통해 만들어진 유·무형의 산물을 기초 자원으로, 도시 구성원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해서 대상고객인 기업, 주민,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이미지, 제도, 공간들을 개발하여 외부에 알리고 마케팅을 펼침으로써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포함한 전체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으로 정의함(임재현, 2023).
- 최재현(2005)은 “장소를 판촉함으로써 도시이미지를 재조직하려는 것으로, 특정 장소나 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여 공적·사적 주체들이 협력을 통해 기존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장소에 대한 매력도를 증대시킴으로써 장소의 상품 가치를 상승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전략”이라고 정의하였고, 이성근 외(2021)는 “지역을 관리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추구되는 일련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함축하는 현상으로 공적·사적 주체들이 기업가와 관광객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에게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 특정한 지역의 이미지를 판매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임재현, 2023).

- 앞서 살펴본 도시마케팅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도시마케팅은 도시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라는 인식하에 도시 구성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도시의 이미지, 제도, 시설 등에 대한 개발·개선을 통해 도시의 전체적인 자산가치를 높이는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시민들의 통합과 소속감 향상을 통한 자긍심의 고취, 도시 인지도 및 선호도 향상을 통한 관광객의 확보,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투자의 유치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임재현, 2023).
-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와 이상적인 기대효과는 도시에 대한 애착심 제고를 통한 시민통합과 도시의 활력 증진, 도시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 시민참여 및 내생적 도시발전 전략의 활성화, 도시문화의 중요성 인식 등으로 귀결될 수 있음(임재현, 2023).
- 도시마케팅 전략은 도시의 비전, 기본방향, 기본목표의 설정과 이에 대한 전략 및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계획과정으로(서용모 외, 2010), 장소, 마케팅, 전략계획 개념이 결합된 도시경쟁력 향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음(이무용, 2006).
- 임재현(2023)은 이희연(2005)과 유승권(2006)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도시마케팅 과정을 제시하고 있음(임재현, 2023).
  - 첫째, 도시 구성원 중심의 도시마케팅 목표 수립
  - 둘째, 고유성, 인지도, 경쟁력, 지속성 등을 중심으로 마케팅 요소들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장소자산의 가치 평가
  - 셋째, 도시 정체성을 토대로 한 장소자산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
  - 넷째, 도시 구성원 즉, 도시마케팅 추진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 다섯째, 도시마케팅 목적에 따른 목표시장 구체화, 수요 분석, 시장접근성 제고, 그리고 최종 산물의 마케팅 방법 및 채널 구체화
- Ashworth and Voogd(1990)는 ‘Selling the City’라는 저서에서 도시마케팅 유형을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이무용, 2003).
  - 첫째, 이미지 강화형 전략으로 기존의 이미지를 보다 강화하는 전략
  - 둘째, 이미지 변화형 전략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전략

- 셋째, 이미지 창출형 전략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거나 거의 희박해진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는 전략

○ 각각의 전략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4] 도시이미지와 마케팅 전략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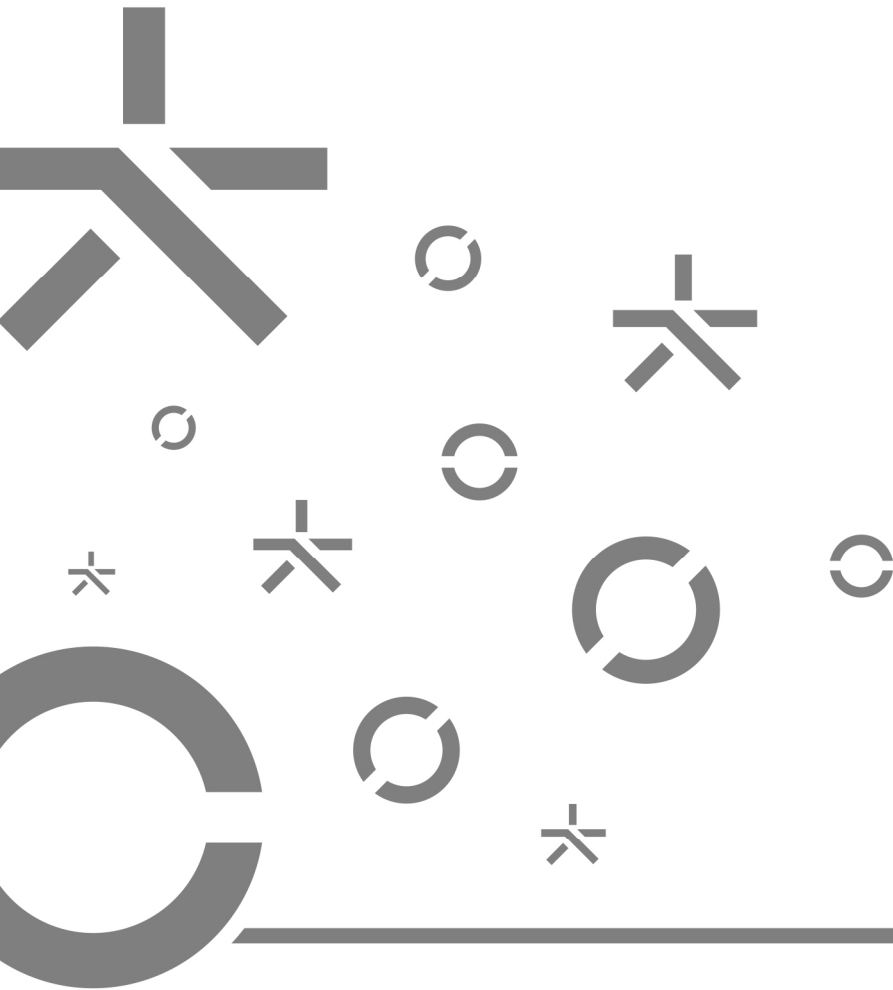
유형	이미지 강화	이미지 대체	이미지 창출
정의	기존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전략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전략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하는 전략	부재하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는 전략
기존 이미지	긍정적	부정적	부재
고객반응 유도	반응강화	반응변화	반응형성
방법(예시)	기존 이미지에 역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문화인프라와 상품에 대한 재정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토탈마케팅 전략수립, 이미지마케팅 타겟 선정, 광범위한 시장조사를 통한 목표시장 선정, 그에 따른 상품개발	

자료(출처): 이무용(2006)

- 도시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하나의 전략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안전도시와 주요 지표의 이해







## 안전도시와 주요 지표의 이해

### 1. 안전도시의 이해

#### 1) 안전도시의 등장

- 안전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개념으로 인식한 것은 1989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차 사고와 손상사고 학술대회(World Conference on Accident and Injury Prevention)였음(양문승·김자은, 2010; 강창현·문순영, 2017; 안승현, 2020).
-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선언을 통해 안전이 기본권임을 천명하고 궁극적인 목표를 손상 및 사고 발생을 감소시켜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역사회 내의 안전증진(safety community promotion)으로 규명하면서 ‘안전’이 사용되었고, “지역사회 내 안전의 개념을 이해하고 어떤 수단들이 행해져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을 안전증진(safety promotion)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음(양문승·김자은, 2010; 강창현·문순영, 2017; 안승현, 2020).
- 지역사회 내 안전 증진을 하나의 개념으로 간주하면서 안전도시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는데, 이 시기 이전까지 안전도시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가 아니라 단순히 안전과 도시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사용되었지만 이후 안전도시는 하나의 용어로 개념화되어 이해되고 있으며 안전도시(safe community)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양문승·김자은, 2010; 강창현·문순영, 2017; 안승현, 2020).
- 또한 안전도시를 뜻하는 ‘community’는 도시로 번역되고 있지만, 공동체라는 의미가 강하여 단순히 도시 자체를 뜻하기보다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구성원과 조직

전체의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양문승·김자은, 2010; 강창현·문순영, 2017; 안승현, 2020).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하고 있는 안전도시는 지역사회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사업으로 권고하는 모델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제도적 등), 행위변화(개인 및 그룹, 조직 등)를 위한 조직적 노력을 통해 손상과 불안감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조성하여 질 높은 건강한 삶을 성공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강창현·문순영, 2017; 안승현, 2020).
- 그 밖에 안전 증진, 부상예방, 폭력예방, 자살예방, 자연재해로 발생한 부상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도시, 도시지역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적 안전 증진 관련 사업(community safety promotion)을 안전도시(safe community)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전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 지역사회, 정부 및 기업, 비정부기구들에 의해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 적용되는 다수준 및 다차원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음(안혁근 외, 2009; 강창현·문순영, 2017; 안승현, 2020).

## 2) 안전도시의 인증

- 지역 차원의 안전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은 주로 안전도시 사업 또는 안전도시 인증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국제적으로 다양한 안전도시 인증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안전도시 사업이 수행되어 왔음.
- 안전도시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안전도시 사업 또는 안전도시 인증사업의 개요를 살펴보고 그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국내외 주요 안전도시 관련 사업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함.

## (1) 국제 안전도시 인증사업

### ①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Certifying Centre

-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은 1989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사고와 손상예방 세계학술대회(World Conference on Accident and Injury Prevention)에서 채택된 “모든 인류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성명이 공식 채택되면서 시작된 사업임(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2018).
-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모든 손상분야 및 인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전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인증해주는 프로그램이며(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2018), 다양한 인위적·자연적 위험요소로부터 지역사회 구성원의 손상과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신상영 외, 2015).
-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의 주체는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Karolinska Institute) 산하의 세계보건기구(WHO)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이며, 국제안전도시 인증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신상영 외, 2015; 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2018).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역사회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국가·도시에서 안전도시 사업에 대한 지원, 평가 및 인증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WHO 지역안전진흥협력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안전도시 인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2018).
- 한국에서는 아주대학교의료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가 안전도시 인증지원센터로 선정되어 국내의 국제안전도시 인증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2018).

### ② 100 Resilient Cities

- ‘복원력’을 가진 세계 100대 도시 사업(100 Resilient Cities, 100RC)은 Rockefeller 재단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전 세계 도시들의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1억 달러를 투자하여 3년 동안 100개의 복원력 우수도시를 선정하는 사업임(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2018).

---

3) 100RC에서 정의하는 복원력(resilience)이란 기후변화, 이민인구증가 등에서 전염병과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부적절한 기반시설에 이르기까지 도시가 직면한 예상 가능 혹은 불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2018).

-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3년 33개, 2014년 35개, 2016년 32개 도시를 선정(서울시 포함)하였음(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2018).

**[표 3-1] 복원력 있는 도시의 7가지 특성**

특성	설명
반영적 (reflec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날 세계적인 차원에서 내재되어 있고 점점 증가하는 불확실성 및 변화를 받아들임</li> <li>• 끊임없이 진화하는 메커니즘을 가져, 현상에 기초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 기준을 수정할 수 있음</li> </ul>
견고한 (robu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계적인 물리적 자산관리로 피해나 기능의 손실 없이 위험에 대한 영향을 이겨냄</li> <li>• 체계 내의 잠재적인 실패를 예상할 수 있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여김</li> </ul>
여분의 (redund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계 내에 여분의 예비적인 역량이 있어 극심한 압력을 받아들일 수 있음</li> <li>• 주어진 수요를 성취하거나 특정한 기능을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있음</li> </ul>
유연한 (flex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통성 있게 체계가 변화하고 진화할 수 있음을 암시</li> <li>• 새로운 지식·기술의 소개나 전통적인 기술과 실행을 새로운 방식으로 고려함으로써 달성</li> </ul>
융통성 있는 (resourcef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격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들이 목표나 수요를 달성하는 다른 방법을 빨리 탐색</li> <li>•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에 투자</li> </ul>
포괄적 (inclus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다양한 커뮤니티의 참여와 폭넓은 협의를 강조</li> <li>• 주인 의식이나 도시 회복력 구축에 대한 공동의 비전 공유에 기여</li> </ul>
통합적 (integra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체계 사이의 통합은 정책결정의 일관성을 촉진하고 모든 투자가 공동의 결과를 상호 지원하는 것을 보장함</li> <li>• 체계 사이의 정보교환은 피드백 고리를 단축하여 도시가 빠르게 대응하고 집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li> </ul>

자료(출처): Rockefeller Foundation and Arup(2014); 김동현 외(2015); 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2018)에서 재인용

- 100RC의 구성원과 전문가 심사 위원단이 1,000개 이상의 지원서를 검토하여 선정하며,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제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요기관(예: 비영리단체, 대학교, 상공회의소 및 연구센터)이 일부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원할 수 있음(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2018).
- UNDRR의 MCR 캠페인이 재정지원 없이 세계 도시들의 자연재해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인 데 비해, 100RC 사업은 재정지원을 통해 소규모 도시(인구 5만 명 이상)들을 대상으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대한 회복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사업임(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2018).

### ③ Making Cities Resilient(MCR) 캠페인

- 1989년 12월, UN 총회에서 1990년대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하여 1990년 1월 IDNDR(International Decade for Natural Disaster Reduction) 사무국이 설립되었다가 1999년 UNISDR(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로 개칭하였고, 2019년 UNDRR(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로 개칭하였음(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2018).
- 2005년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2015년까지 10년 동안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춰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손실을 줄이자는 효과행동 강령(Hyogo Framework for Action, HFA)을 채택하였고, HFA 실천방안의 하나로 특히 도시위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UNDRR은 2010년 5월부터 Making Cities Resilient(MCR)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음(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2018).
- MCR 캠페인은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의 달성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의 구축을 촉구함(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2018).
- MCR 캠페인은 주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장기적 파트너십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음(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2018).
- 특히 MCR 캠페인은 사회기반시설 강화와 개선, 에너지 효율과 안전을 위한 건축물 보강, 도시 혁신과 재생, 청정에너지 사용, 빈민가 개량 등 자본투자를 통해 도시의 재난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UNDRR에서는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원칙, 방법론, 자가진단툴 등 제공하고, 캠페인 참여 시 UNDRR이 작성한 도시 복원역량을 갖추기 위한 열 가지 필수 체크리스트를 통해 해당 도시의 회복역량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2018).
- 캠페인 참여도시 중 재해위험감소를 위한 혁신적·포괄적·효과적 수단·조치를 실행하고 있는 도시를 롤모델 도시(role model cities)로 선정함(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2018).

## (2) 국내 안전도시 사업의 전개과정과 특징

-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도시’라는 용어가 2009년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나라 만들기 안전도시(Safe City)’ 사업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이는 WHO의 안전도시 사업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지역 안전 자치를 실현하고자 한 정부의 사업이었음(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9; 안승현, 2020).
- 해당 사업에서는 안전도시를 “‘안전·안심·안정’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스스로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 단위를 기초자치단체로 하여 시범사업의 형태로 1년간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음(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9; 강창현·문순영, 2017; 안승현, 2020).
- 2013년, 공모 과정을 통해 시행된 안전행정부 안심마을 시범사업은 앞서 진행된 안전도시 시범사업과 형태는 유사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거주지의 위해요인들을 직접 관리해 나가고 행정기관은 해당 지역에 부족한 안전 인프라를 보완해 주는, 주민참여가 강조된 형태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시행 단위를 마을 단위(읍면동, 리통)로 하여 시범사업의 형태로 1년간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안승현, 2020).
- 2015년, 국민안전처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업 목적이 비슷한 안심마을과 방재우수마을(소방방재청 사업)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면서, 사업의 대상을 자연재난과 생활안전으로 구분하고, 안심마을의 CPTED와 방재우수마을의 안전활동 등 각각의 특징을 접목시킨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시행 단위를 마을 단위(읍면동, 리통)로 하여 시범사업의 형태로 1년간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안승현, 2020).
- 이후 2016년에 국민안전처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목표로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업하여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지역을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지자체 단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지역별 확산 거점 역할을 수행할 17개 시군구를 모델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기초자치단체를 시행 단위로 하여 3년(2016~2018년)간 17개 시도별로 1개의 시군구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음(안승현, 2020).

-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안전도시'는 지역(도시)이나 마을 단위로 그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자연적 및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위험을 방지하고 이러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험에 대한 대비, 대응, 복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국제안전도시의 손상예방보다 사회적 및 자연적 재난의 더 넓은 범주로 안전 증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음(강창현·문순영, 2017; 안승현, 2020).

[표 3-2] 국내 안전도시 사업 비교

구분	안전도시	안심마을	방재활동 우수마을	안전마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시행시기	2009	2013-2014	2014-2015	2015	2016-2018
시행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
시행단위	기초체	마을 단위 (읍면동, 리통)	마을 단위 (읍면동, 리통)	마을 단위 (읍면동, 리통)	기초체 (중점개선지구)
사업대상	생활안전 (구조+비구조)	생활안전 (구조+비구조)	자연재난 (비구조)	자연재난 +생활안전 (구조+비구조)	안전지수 5대 항목 (구조+비구조)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한국행정연구원(2018)의 자료를 일부 수정

## 2. 주요 지표의 이해

### 1)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를 중심으로

-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에 따라 매년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을 공표하고 있는 제도로,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통하여 주민은 더 안전해지고, 안전사고 및 안전사고 사망자는 체계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행정안전부 홈페이지<sup>4)</sup>).
- 안전 관련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6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안전역량을 5개 등급으로 객관적으로 계량화한 정보이며, 안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유도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2010년부터 지역안전지수 제도

4) <https://www.mois.go.kr/frt/sub/a06/b10/safetyIndex/screen.do>. 검색일: 2023. 12. 22.

필요성 검토를 시작하여 2015년 첫 공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행정안전부 홈페이지5).

- 행정안전부는 매년 12월 행정안전부(www.mois.go.kr), 국립재난안전연구원(www.ndmi.go.kr),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 누리집 및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고 있음(행정안전부 홈페이지6).

**[표 3-3] 지역안전지수 산출지표의 유형별 의미 및 통계 분류 기준**

구분	의미 및 분류 기준
위해 지표	분야별 사망자 및 발생 건수로 공공(지방자치단체 등)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취약요인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각종 정책, 사업 등을 통해 감축시켜야 하는 지표로 지자체에서 정책적 목표 등으로 설정할 수 있는 지표
취약 지표	분야별 위해지표가 발생하거나 가중될 수 있는 지역의 인적, 사회경제적, 장소, 시설 등과 관련하여 통계로 측정할 수 있는 취약요인으로 공공(지방자치단체 등)과 주민이 함께 관리해야 할 지표, 절대로 인위적 증감을 할 수 있는 대상 아님
경감 지표	분야별 위해지표 감축 및 위험 제거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업, 필요한 예산, 요구되는 인력 등과 관련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경감요인으로 공공(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활용하거나 투입할 수 있는 지표
의식 지표	분야별 위해지표 감축 및 위험을 주민 활동으로 예방하거나 발견하여 제거될 수 있도록 공공(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등을 주민이 받고 실천하는 등 주민참여 형태와 관련하여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자료(출처): 신진동 외(2022)

- 2022년 기준 지역안전지수의 범죄 분야 지표는 다음과 같음.

**[표 3-4]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산출지표 및 가중치**

구분	가중치	산출지표(가중치)
위해지표	50%	인구만명당 5대 주요범죄 발생건수(50.0)
취약지표	10%	①인구만명당 집객 시설수(3.04) ②인구만명당 주점업 업체수(5.26) ③스트레스 인지율(1.70)
경감지표	20%	①인구만명당 경찰관서수(17.29) ②인구만명당 범죄예방CCTV대수(2.71)
의식지표	20%	①인구만명당 아동안전지킴이집수(3.06) ②인구만명당 자율방범대원수(16.94)

자료(출처): 신진동 외(2022)의 내용을 일부 수정

5) <https://www.mois.go.kr/frt/sub/a06/b10/safetyIndex/screen.do>. 검색일: 2023. 12. 22.

6) <https://www.mois.go.kr/frt/sub/a06/b10/safetyIndex/screen.do>. 검색일: 2023. 12. 22.



- 지역안전지수는 지표 구성의 특성상 일부 한계를 가질 수 있는데, 특히 취약지표와 경감지표가 지역의 여건을 설명하는 환경적 지표로 구성되기 때문임(송창영, 2020).
- 또한 특·광역시, 시·군·구 등 유형별로 1등급에서 5등급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상대등급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전 개선 노력이나 성과 측면이 정확하게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음(송창영, 2020).

## 2) 체감안전도

- 체감안전도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초기 체감안전도 관련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과 고객만족의 개념을 결합하여 사용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정재훈·이병도, 2017; 이병도, 2022).
- 경찰에서도 체감안전도를 체감치안이나 치안체감도 등 이론상 범죄두려움을 역으로 치환한 형태에 가까운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내부만족도나 치안고객만족도 등 경영학이나 행정학의 고객만족도에 가까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음(정철우, 2015; 이병도, 2022).
- 이병도(2022)는 체감안전도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국민이 인식하는 안전에 대한 다양한 요인과 거주지역의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에 대한 복합적 지표”를 학술적 의미의 체감안전도라고 정의하였음(이병도, 2022).
- 치안만족도 조사는 경찰과 접촉한 시민들과 접촉하지 않은 시민들을 구분하여 실시한 경찰청 주관 전국 단위 설문조사로 199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2011년부터 경찰과 접촉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치안만족도 조사와 비접촉고객만을 대상으로 한 체감안전도 조사로 나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이병도, 2022).
- 체감안전도 조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국민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②이를 경찰의 업무성과평가와 인사평가 등에 반영하여 기존 치안업무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③그 결과를 새로운 치안업무 수립과 기존정책 환류에 활용하는 것임(이병도 외, 2015; 이병도, 2022).

[그림 3-1] 2023년 체감안전도 조사 설문지

지표명		세 부 내 용
분야별 안전도	교통사고 발생 추세에 대한 인식	1.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b>교통사고</b> 로부터 현재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강력·사회적 약자 대상 등 범죄 추세에 대한 인식	2.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b>절도·폭력 등과 같은 범죄</b> 로부터 현재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b>강도·살인 등과 같은 범죄</b> 로부터 현재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b>여성·아동·노인 대상 범죄</b> 로부터 현재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초법질서 위반 수준에 대한 평가	5.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b>생활 주변의 법질서</b> 가 현재 얼마나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 안전도		6.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b>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b>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점수 6-1. 주관식 질문 ⑥~⑦ → 어떤 이유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⑦~⑧ → 어떤 부분을 개선한다면 차후 9점 또는 10점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⑨~⑩ → 어떤 이유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안전 추세에 대한 인식	7.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예방시설 설치 적절성에 대한 인식	8.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 설치된 CCTV, 가로등, 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은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방범자원의 가용성에 대한 인식	9.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범죄에 대한 자율방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자원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10.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경찰관 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찰활동의 만족도	11.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경찰은 후미진 공원, 어두운 골목길, 기타 인적이 뜸한 장소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만족도	12.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경찰은 경찰방문이나 방범진단과 같은 범죄예방 활동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의 법집행 활동 만족도	13.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경찰은 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무질서(불량청소년) 정도	14.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불량청소년들이 자주 몰려다니는 곳이 있습니까?	
사회적 무질서(취객) 정도	15.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밤에 술에 취해 시바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집에 혼자 있을 때 안전도	16.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집에 혼자있을 때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야간에 길을 걸을 때 안전도	17.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집합효율성에 대한 인식	18.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이웃이 범죄피해를 당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대, 관할 지역 등	

자료(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 경찰은 매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전국 체감안전도 조사를 시행하며, 조사에는 2주 정도의 시행 기간이 소요되고,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 소속 모니터 요원들이 무작위 전화면접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체감안전도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짐(이병도 외, 2015; 이병도, 2022).
- 경찰의 성과평가 기준은 정량적 평가지표와 정성적 평가지표를 모두 활용하고 있으며, 체감안전도는 치안만족도와 더불어 대표적인 정성적 평가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평가를 받는 경찰 내부적으로는 범죄검거율, 112신고 대응시간과 같은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자원을 투입한 만큼 성과물을 얻을 가능성이 크지만, 체감안전도와 같은 정성적 성과지표는 투입 대비 산출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불만과 비판이 존재하고 있음(이병도, 2022).

### 3) 범죄두려움

- 범죄두려움의 개념과 측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관련 연구를 종합해보면 “범죄로부터 발생하는 정서적 반응 또는 범죄와 연관시키는 상징”(Ferraro & LaGrange, 1987)과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인 범죄에 대한 반응”(Ferraro & LaGrange, 1987; Ferraro, 1995; Pleysier, 2009)이라는 두 가지 정의로 나눌 수 있음(안재경·최이문, 2023).
-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정서적 차원은 행동 성향, 사회와 지역사회와의 범죄 문제에 대한 불안, 범죄 위협에 대한 일련의 구체적 걱정을 포함하는 감정의 문제를 다루는 반면(Farrall & Gadd, 2004; Garofalo & Laub, 1978; Hough, 2004, Jackson, 2004), 인지적 측면은 범죄 위협에 대한 평가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Jackson, 2011; Warr, 1987).
- 안재경·최이문(2023)은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정서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의 가장 큰 차이가 “인지적 차원으로서의 범죄두려움이 실제 정서적 반응에 선행하여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포함하는 반면, 정서적 차원은 이러한 평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라고 주장하였음(안재경·최이문, 2023).
- 즉, 인지적 차원으로서의 범죄두려움은 피해가능성과 피해 결과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범죄 발생을 예방하거나, 범죄상황 발생 시 특정 방향으로 행위하려는 반응과

감정을 포함하는 정서적 차원의 범죄두려움과는 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며(Warr, 1987; Ferraro, 1995; Jackson, 2011), 범죄두려움의 개념과 측정에 대해 논의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것임(안재경·최이문, 2023).

- 국내에서 범죄두려움에 대한 조사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려움을 크게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음.
- 일반적 두려움은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고, 구체적 두려움은 ‘구체적인 범죄 피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개념적 구분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막연하거나 일반적인지 혹은 구체적이거나 특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짐(노성호·신소라, 2020).

**[표 3-5]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범죄두려움 측정 문항**

구분	문항
일반적 두려움	Q.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다: 5) ①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②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구체적 두려움	Q.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다: 5) ①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②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렵다 ③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④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 ⑤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⑥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렵다 ⑦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⑧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자료(출처): 안재경·최이문(2023)의 내용을 일부 수정

- 범죄두려움의 측정에 있어서 개념의 모호성, 감정 정도 측정의 어려움, 일관성 있는 기준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범죄두려움이 실제 발생하는 범죄현상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노성호·신소라, 2020; 안재경·최이문, 2023).

## 인천시 안전 현황





## 인천시 안전 현황

### 1. 기본 현황

#### 1) 인문·사회 환경

- 2021년 기준 인구는 2012년 대비 약 4.27% 증가하여 3,014,73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19년 고점 기록 후 소폭 감소하였음.
- 세대당 인구는 2012년 2.63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1년 기준 2.32명으로 향후 일정 기간 감소 추세가 예상됨.

[표 4-1] 최근 10년(2012~2021)간 인천시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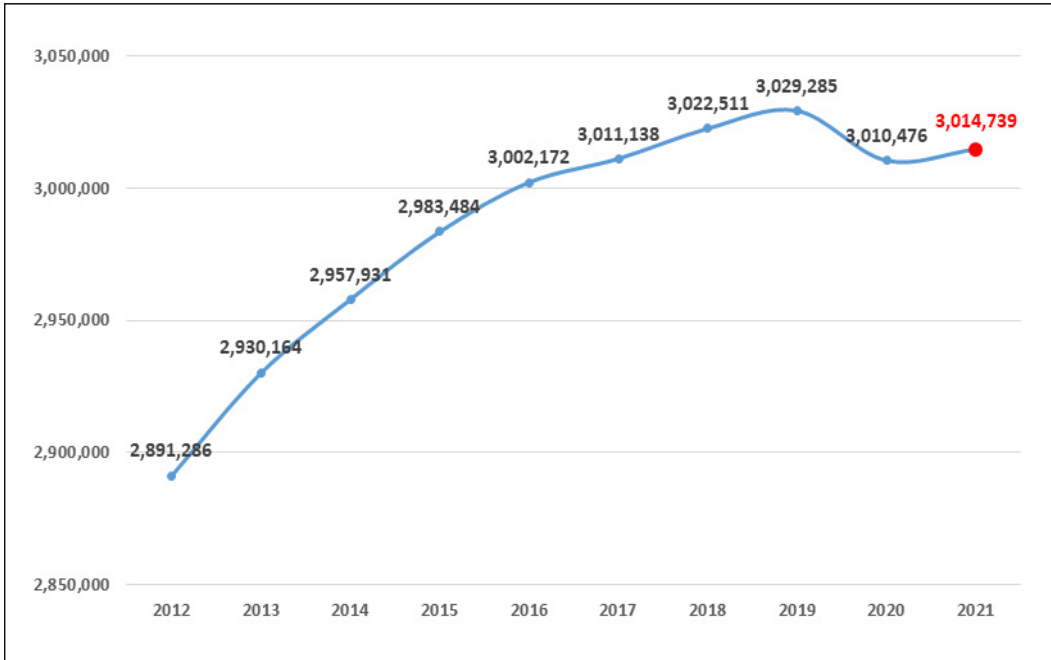
(단위: 세대, 명, 명/km<sup>2</sup>, %)

연도	세대	인구	인구밀도	세대당 인구	인구증가율	65세 이상 고령자	외국인
2012	1,097,491	2,891,286	2,778	2.63	1.40	260,107	47,305
2013	1,118,988	2,930,164	2,815	2.62	1.34	282,471	50,382
2014	1,136,280	2,957,931	2,824	2.60	0.95	298,818	55,323
2015	1,154,004	2,983,484	2,847	2.59	0.86	312,905	57,669
2016	1,171,399	3,002,172	2,789	2.56	0.63	324,255	59,103
2017	1,188,917	3,011,138	2,832	2.53	0.30	345,024	62,596
2018	1,213,201	3,022,511	2,845	2.49	0.38	362,675	67,869
2019	1,238,641	3,029,285	2,849	2.45	0.22	384,506	72,259
2020	1,267,956	3,010,476	2,826	2.37	-0.62	411,483	67,648
2021	1,298,647	3,014,739	2,830	2.32	0.14	463,850	66,364

자료(출처): 인천광역시(2023)

[그림 4-1] 최근 10년(2012~2021)간 인천시 인구 추이

(단위: 명)



자료(출처): 인천광역시(2023)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 2021년 기준 인구구조는 2017년에 비해 아동인구(14세 이하) 및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표 4-2] 최근 5년(2017~2021)간 인천시 인구구조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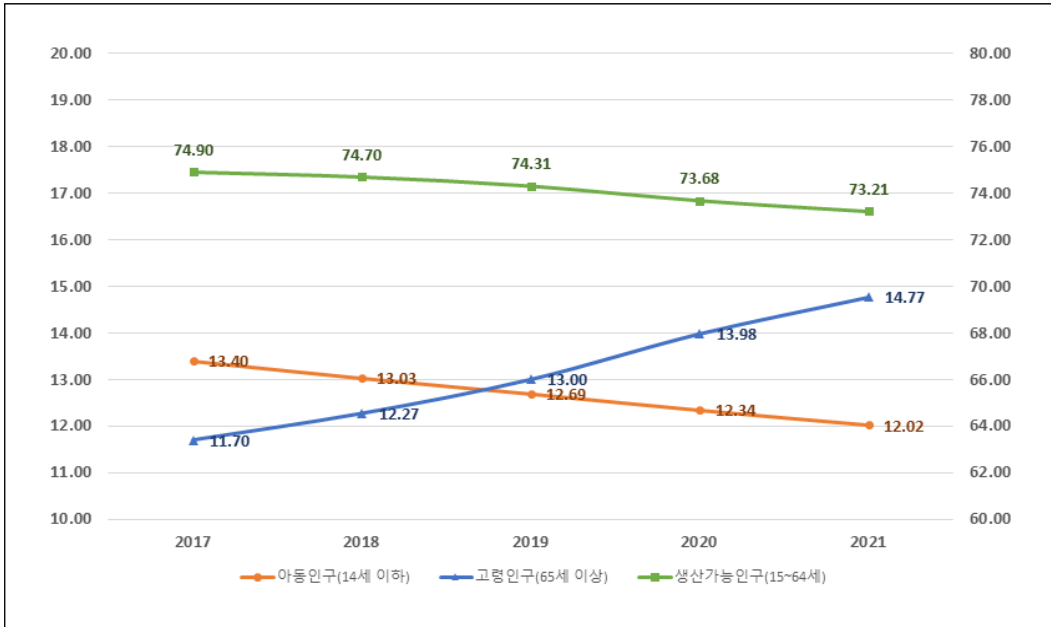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전체	2,948,542	100.00	2,954,643	100.00	2,957,026	100.00	2,942,828	100.00	2,948,375	100.00
아동인구 (14세 이하)	394,966	13.40	384,919	13.03	375,242	12.69	363,137	12.34	354,400	12.02
생산가능인구 (15~64세)	2,208,552	74.90	2,207,048	74.70	2,197,236	74.31	2,168,208	73.68	2,158,544	73.21
고령인구 (65세 이상)	345,024	11.70	362,675	12.27	384,506	13.00	411,483	13.98	435,431	14.77

자료(출처): 인천광역시(2023)



[그림 4-2] 최근 5년(2017~2021)간 인천시 인구구조 추이

(단위: %)



자료(출처): 인천광역시(2023)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 용도지역 총면적은 2021년 12월 기준 약 1,094.27km<sup>2</sup>이며, 이 중 도시지역이 47.30%, 비도시지역(관리지역)이 28.86%, 농림지역이 23.83%를 차지함.

[표 4-3] 2021년 용도지역 현황

구분		면적(km <sup>2</sup> )	비율(%)	
합계		1094.27	100.00	
소계		517.62	47.30	
도시지역	소계	121.20	11.08	
	주거지역	전용		
		제1종	1.05	0.10
	제2종	2.11	0.19	
	일반주거지역	제1종	15.01	1.37
		제2종	43.68	3.99
		제3종	41.58	3.80
	준주거지역	17.77	1.62	
	상업지역	소계	23.74	2.17
		중심상업지역	3.58	0.33
일반상업지역		18.28	1.67	
근린상업지역		0.69	0.06	
유통상업지역		1.19	0.11	

구분		면적(km <sup>2</sup> )	비율(%)	
공업 지역	소계	67.65	6.18	
	전용공업지역	4.06	0.37	
	일반공업지역	35.80	3.27	
	준공업지역	27.79	2.54	
	녹지 지역	소계	293.64	26.83
		보전녹지지역	51.67	4.72
		생산녹지지역	6.23	0.57
		자연녹지지역	235.74	21.54
미지정지		11.39	1.04	
비도시지역	소계	315.83	28.86	
	보전관리지역	131.44	12.01	
	생산관리지역	28.29	2.59	
	계획관리지역	154.64	14.13	
	미세분지역	1.46	0.13	
농림지역		260.77	23.83	
자연환경보존지역		0.05	0.00	

자료(출처):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data/15055213/fileData.do>). 검색일: 2023.08.18.

## 2) 산업·경제 환경

- 2021년 기준 전국 지역총생산액은 2,083조 7,949억 원이며, 인천시는 98조 6,705억 원으로 전국 지역총생산액의 4.74%를 차지하고 있음.

[표 4-4] 최근 10년(2012~2021)간 전국 및 인천시 지역내총생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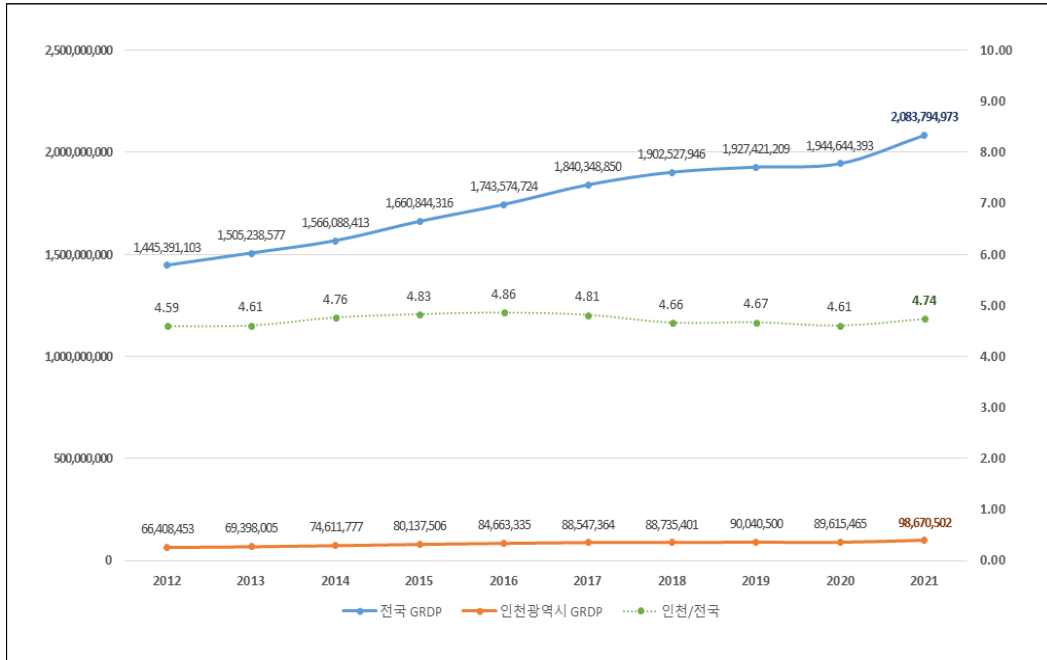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연도	전국 GRDP	인천시 GRDP	인천/전국
2012	1,445,391,103	66,408,453	4.59
2013	1,505,238,577	69,398,005	4.61
2014	1,566,088,413	74,611,777	4.76
2015	1,660,844,316	80,137,506	4.83
2016	1,743,574,724	84,663,335	4.86
2017	1,840,348,850	88,547,364	4.81
2018	1,902,527,946	88,735,401	4.66
2019	1,927,421,209	90,040,500	4.67
2020	1,944,644,393	89,615,465	4.61
2021	2,083,794,973	98,670,502	4.74

자료(출처): 통계청, 「지역소득」, 2022, 2023.08.18, GRDP(시도)

[그림 4-3] 최근 10년(2012~2021)간 전국 및 인천시 지역내총생산 추이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통계청, 「지역소득」, 2022, 2023.08.18, GRDP(시도)

- 2021년 기준, 인천시 전체 사업체 수는 308,892개소, 종사자 수는 1,223,448명으로 전체 인구의 41.50%가 종사하고 있음.
- 사업체 수는 3차 산업의 비율이 80.60%로 가장 높으며,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3차 산업의 도매 및 소매업이 25.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종사자 수 또한 3차 산업의 비율이 71.28%로 가장 높으나,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2차 산업의 제조업이 20.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4-5] 2021년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구성비		구성비
합계	308,892	100.00	1,223,448	100.00
1차 산업	소계	132	648	0.05
	농업, 임업 및 어업	132	648	0.05
2차 산업	소계	59,780	350,740	28.67
	광업	35	510	0.04
	제조업	33,574	250,357	20.46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구성비		구성비
3차 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42	0.14	4,644	0.3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750	0.24	7,859	0.64
	건설업	24,979	8.09	87,370	7.14
	소계	248,980	80.60	872,060	71.28
	도매 및 소매업	78,576	25.44	173,100	14.15
	운수 및 창고업	38,766	12.55	95,243	7.78
	숙박 및 음식점업	41,752	13.52	103,117	8.43
	정보통신업	4,194	1.36	14,909	1.22
	금융 및 보험업	2,383	0.77	23,957	1.96
	부동산업	14,678	4.75	32,906	2.6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722	2.82	43,353	3.5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563	2.45	64,731	5.2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91	0.16	42,352	3.46
	교육 서비스업	11,644	3.77	79,359	6.4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230	2.66	135,496	11.0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871	2.55	19,310	1.5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4,110	7.81	44,227	3.61

자료(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21, 2023.08.18,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20~)

### 3) 재난안전 환경

- 자연재난의 경우 대규모 재해의 발생빈도는 높지 않으나 2012년, 2017년, 2019년의 사례처럼 발생 시 대규모 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음.

[표 4-6] 최근 10년(2012~2021)간 자연재난 피해 현황

(단위: 천 원)

연도	사망·실종(명)	이재민(명)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사유시설	합계
2012	-	1,000	336,000	44,899	7,736	3,337,503	1,506,887	5,233,025
2013	1	189	41,400	-	144	-	228,839	270,383
2014	-	96	25,000	17,724	-	54,913	104,106	201,743
2015	-	17	4,600	23,120	-	-	379,766	407,486
2016	-	76	27,600	16,711	223	-	131,702	176,236
2017	1	6,518	2,549,600	-	-	-	-	2,549,600
2018	2	10	195,800	13,082	197,173	38,110	77,370	521,535
2019	-	91	469,244	89,252	42	2,542,636	7,305,473	10,406,647
2020	1	30	121,200	21,016	871	218,612	9,273	370,972
2021	5	-	22,000	-	-	-	279,020	301,020

자료(출처): 행정안전부(2022b)

○ 지난 10년간(2012~2021년) 풍수해 재해 유형별 피해액은 총 204억 원이며, 이 중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인 152억 원, 호우 3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4-7] 최근 10년(2012~2021)간 재해 유형별 피해 현황

(단위: 천 원)

연도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강풍	한파	합계
합계	계	15,219,751	3,465,845	351,535	536,404	586,092	279,020	20,438,647
	비율(%)	74.47	16.96	1.72	2.62	2.87	1.37	100.00
2012		4,641,212	266,520	-	325,293	-	-	5,233,025
2013		-	47,319	175,188	47,876	-	-	270,383
2014		15,000	9,000	84,933	92,810	-	-	201,743
2015		-	3,600	-	70,425	333,461	-	407,486
2016		4,318	63,793	91,414	-	16,711	-	176,236
2017		-	2,549,600	-	-	-	-	2,549,600
2018		-	285,615	-	-	235,920	-	521,535
2019		10,403,903	2,744	-	-	-	-	10,406,647
2020		155,318	215,654	-	-	-	-	370,972
2021		-	22,000	-	-	-	279,020	301,020

자료(출처): 행정안전부(2022b)

○ 사회재난으로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화재, 수난, 붕괴 순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8] 최근 6년(2016~2021)간 사회재난 발생 및 피해 현황

(단위: 건)

연도	합계	화재	산불	붕괴	가스 폭발	도로 교통	환경 오염	유·도선	수난	기타
2016	12,608	1,790	25	12	2	8,810	2	-		195
2017	10,930	1,608	21	14	1	8,107	4	7	133	1,035
2018	11,108	1,620	19	17	2	8,002	6	8	232	1,202
2019	11,507	1,499	24	33	1	9,062	9	3	223	653
2020	11,192	1,368	14	237	1	8,505	14	6	252	795
2021	10,486	1,270	8	66	1	8,357	4	2	115	663

자료(출처): 행정안전부(2022a); 인천광역시(2023)에서 재인용

## 2. 안전 현황

### 1)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를 중심으로

- 2022년 기준 인천시의 범죄 분야 지역안전지수는 2등급으로 과거 4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4-9] 최근 5년(2018~2022)간 인천시 지역안전지수(범죄) 등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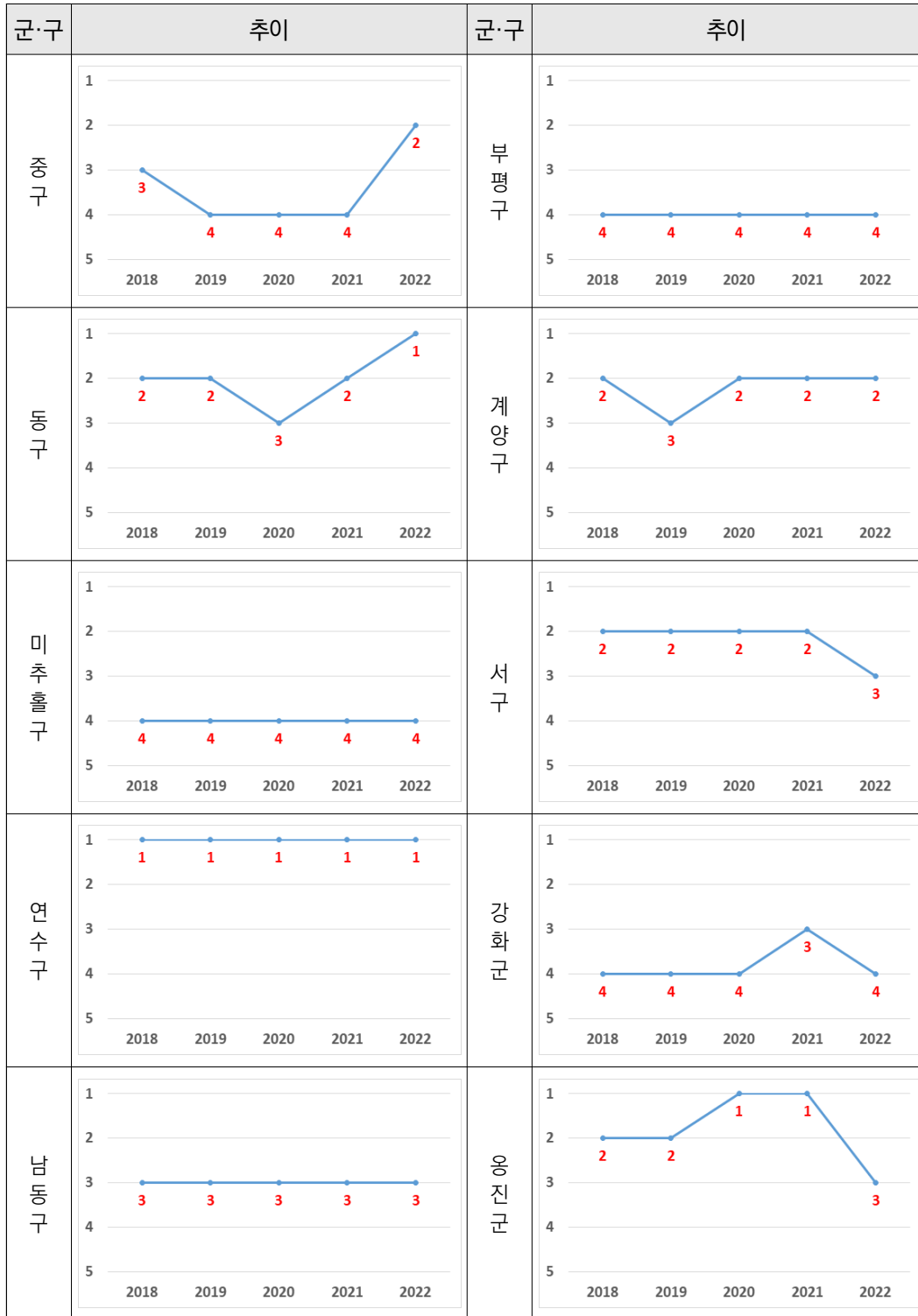
(단위: 등급)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천 전체	3	3	3	3	2
중구	3	4	4	4	2
동구	2	2	3	2	1
미추홀구	4	4	4	4	4
연수구	1	1	1	1	1
남동구	3	3	3	3	3
부평구	4	4	4	4	4
계양구	2	3	2	2	2
서구	2	2	2	2	3
강화군	4	4	4	3	4
옹진군	2	2	1	1	3

자료(출처): 생활안전지도(<https://www.safemap.go.kr/asds/safe.do#tab1>, 검색일: 2023.08.04.)를 토대로 작성

- 인천시 및 군·구 중 최근 5년간 5등급을 기록한 곳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등급의 큰 변동은 없는 상태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수구의 경우 최근 5년간 계속 1등급을 기록하여 인천시 내 군·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최근 5년간 계속 4등급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강화군 또한 최근 5년 중 4년간 4등급을 기록하고 있어 지역의 범죄 분야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

[그림 4-4] 최근 5년(2018~2022)간 인천시 군·구별 지역안전지수(범죄) 등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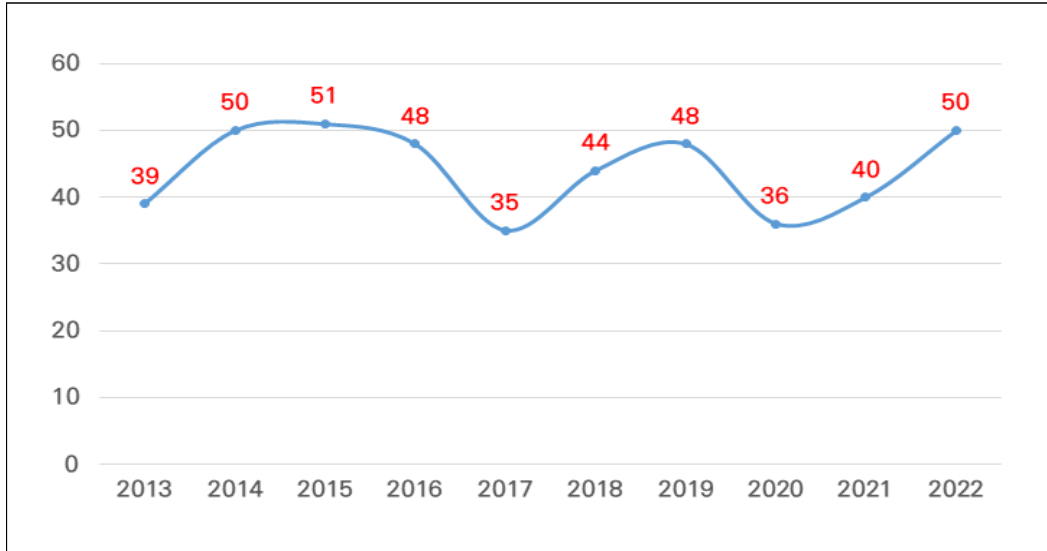
자료(출처): 생활안전지도(<https://www.safemap.go.kr/asds/safe.do#tab1>, 검색일: 2023.08.04.)를 토대로 작성

## 2) 범죄 통계: 지역안전지수 위해지표를 중심으로

○ 2022년 기준 인천시의 최근 10년간 살인 발생건수 및 추이는 다음과 같음.

[그림 4-5]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5대 주요범죄(살인) 발생 추이

(단위: 건)



자료(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2013~2022, 2023.12.13,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인천청)

[표 4-10]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관할서별 5대 주요범죄(살인) 발생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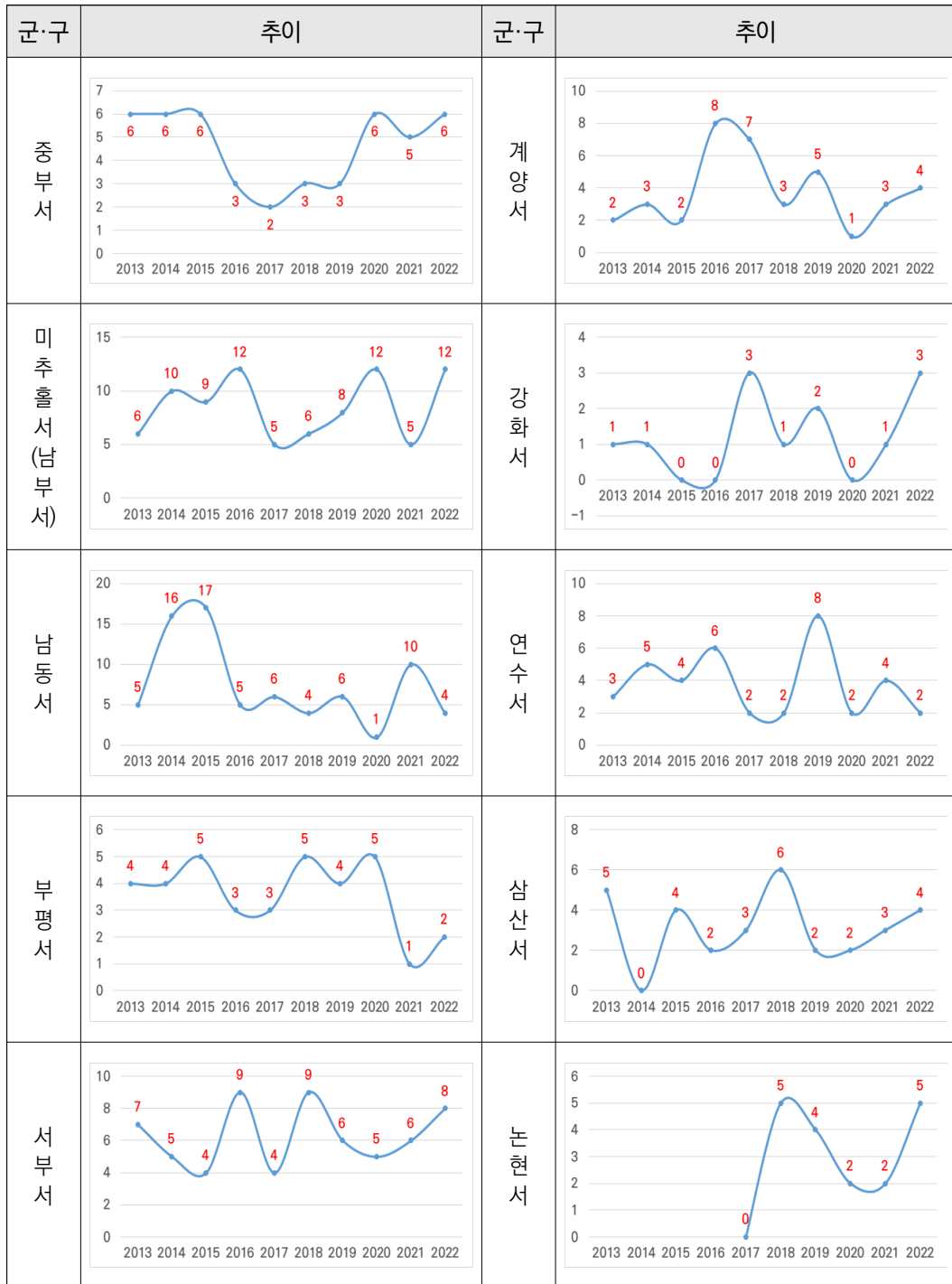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39	50	51	48	35	44	48	36	40	50
중부서	6	6	6	3	2	3	3	6	5	6
미추홀서 (남부서)	6	10	9	12	5	6	8	12	5	12
남동서	5	16	17	5	6	4	6	1	10	4
부평서	4	4	5	3	3	5	4	5	1	2
서부서	7	5	4	9	4	9	6	5	6	8
계양서	2	3	2	8	7	3	5	1	3	4
강화서	1	1	0	0	3	1	2	0	1	3
연수서	3	5	4	6	2	2	8	2	4	2
삼산서	5	0	4	2	3	6	2	2	3	4
논현서	-	-	-	-	0	5	4	2	2	5

자료(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2013~2022, 2023.12.13,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인천청)



○ 최근 10년간 살인 발생 추이를 관할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4-6]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관할서별 5대 주요범죄(살인)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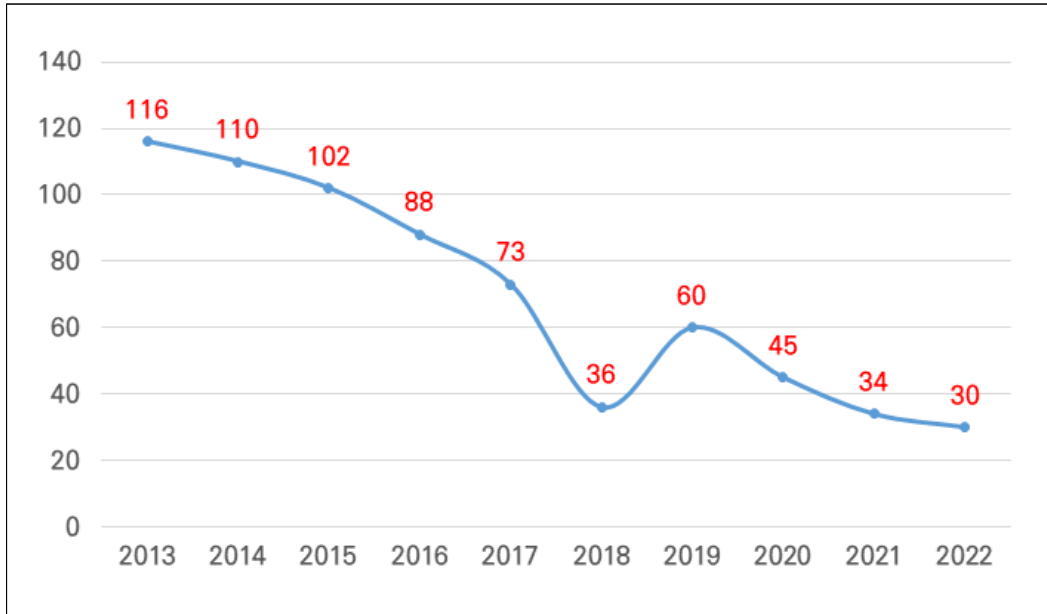


자료(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2013~2022, 2023.12.13,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인천청)

○ 2022년 기준 최근 10년간 강도 발생건수 및 추이는 다음과 같음.

[그림 4-7]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5대 주요범죄(강도) 발생 추이

(단위: 건)



자료(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2013~2022, 2023.12.13,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인천청)

[표 4-11]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관할서별 5대 주요범죄(강도) 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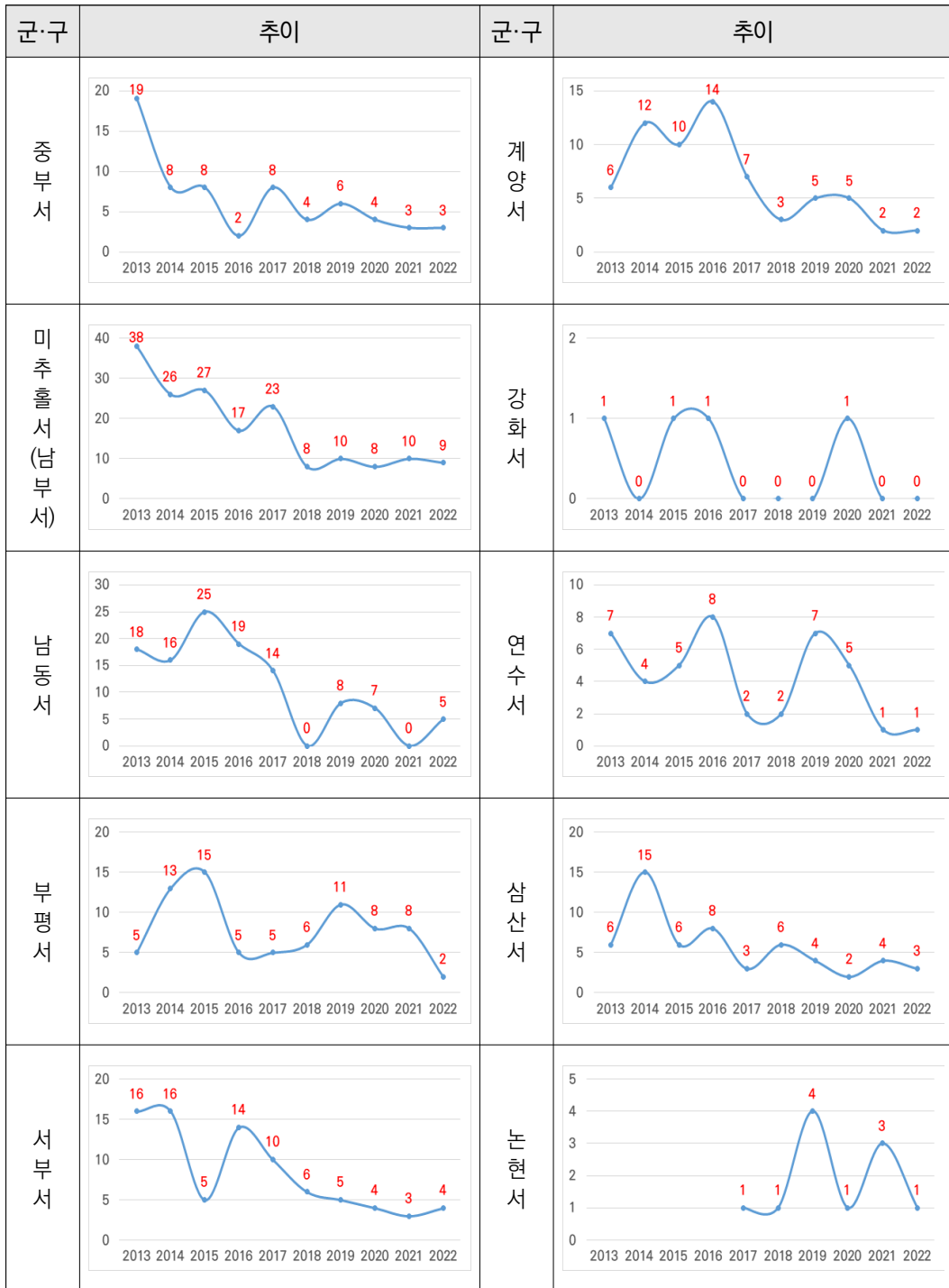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16	110	102	88	73	36	60	45	34	30
중부서	19	8	8	2	8	4	6	4	3	3
미추홀서 (남부서)	38	26	27	17	23	8	10	8	10	9
남동서	18	16	25	19	14	0	8	7	0	5
부평서	5	13	15	5	5	6	11	8	8	2
서부서	16	16	5	14	10	6	5	4	3	4
계양서	6	12	10	14	7	3	5	5	2	2
강화서	1	0	1	1	0	0	0	1	0	0
연수서	7	4	5	8	2	2	7	5	1	1
삼산서	6	15	6	8	3	6	4	2	4	3
논현서	-	-	-	-	1	1	4	1	3	1

자료(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2013~2022, 2023.12.13,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인천청)

○ 최근 10년간 강도 발생 추이를 관할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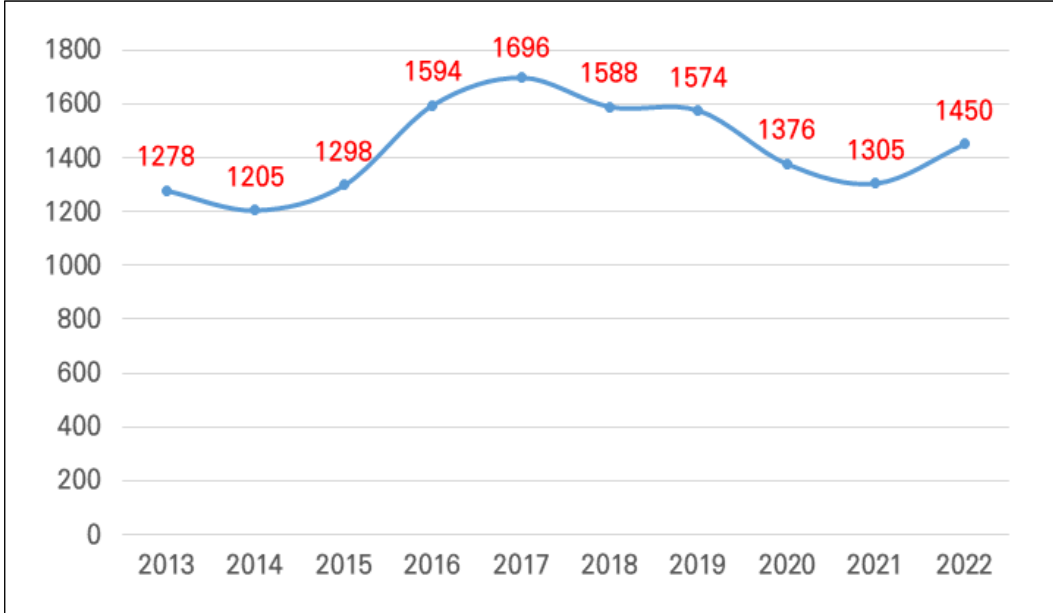
[그림 4-8]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관할서별 5대 주요범죄(강도) 발생 추이



자료(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2013~2022, 2023.12.13,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인천청)

○ 2022년 기준 최근 10년간 강간 및 강제추행 발생건수 및 추이는 다음과 같음.

[그림 4-9]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5대 주요범죄(강간·강제추행) 발생 추이 (단위: 건)



자료(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2013~2022, 2023.12.13,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인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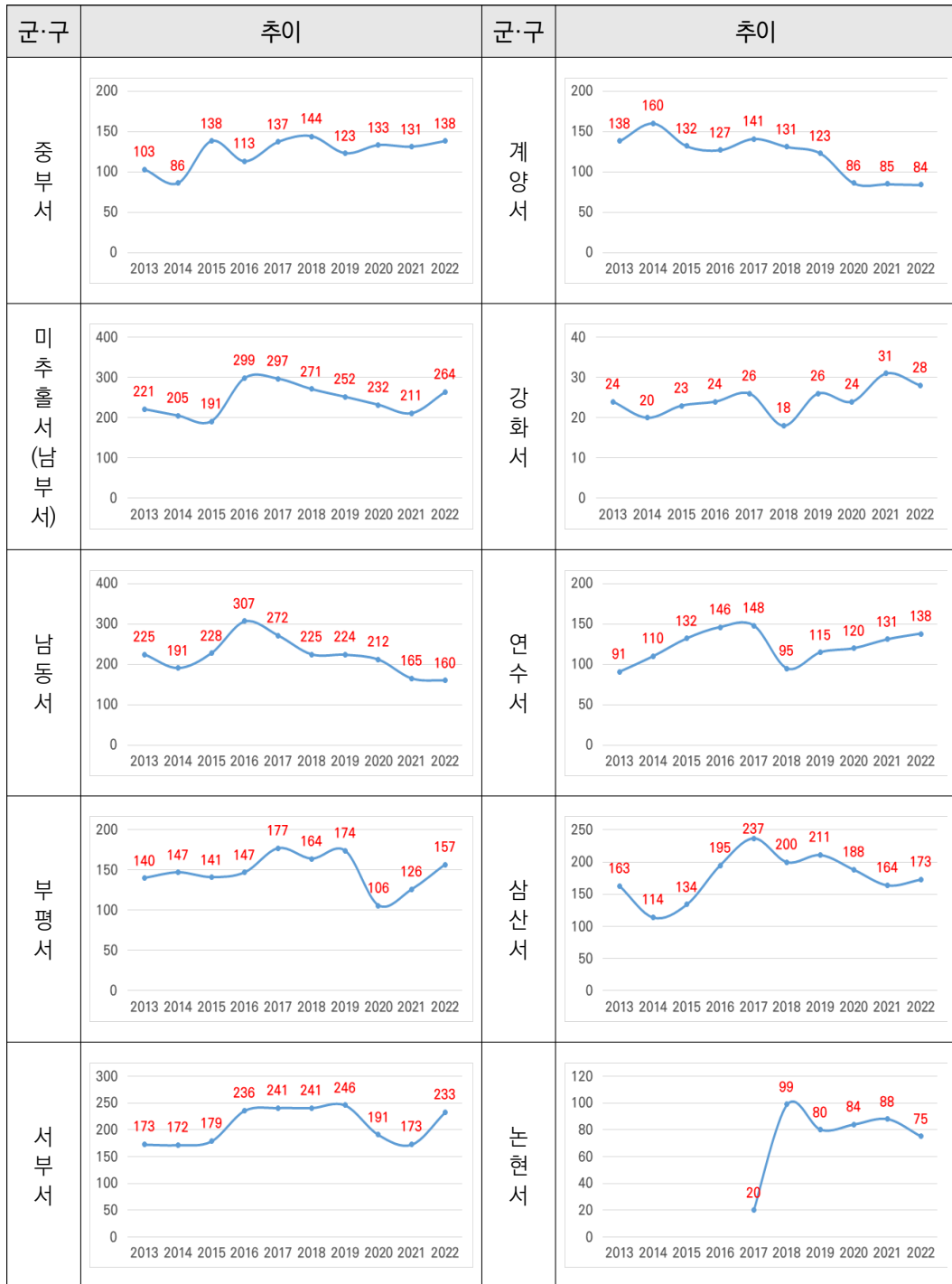
[표 4-12]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관할서별 5대 주요범죄(강간·강제추행) 발생건수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278	1205	1298	1594	1696	1588	1574	1376	1305	1450
중부서	103	86	138	113	137	144	123	133	131	138
미추홀서 (남부서)	221	205	191	299	297	271	252	232	211	264
남동서	225	191	228	307	272	225	224	212	165	160
부평서	140	147	141	147	177	164	174	106	126	157
서부서	173	172	179	236	241	241	246	191	173	233
계양서	138	160	132	127	141	131	123	86	85	84
강화서	24	20	23	24	26	18	26	24	31	28
연수서	91	110	132	146	148	95	115	120	131	138
삼산서	163	114	134	195	237	200	211	188	164	173
논현서	-	-	-	-	20	99	80	84	88	75

자료(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2013~2022, 2023.12.13,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인천청)

○ 최근 10년간 강간 및 강제추행 발생 추이를 관할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4-10]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관할서별 5대 주요범죄(강간·강제추행)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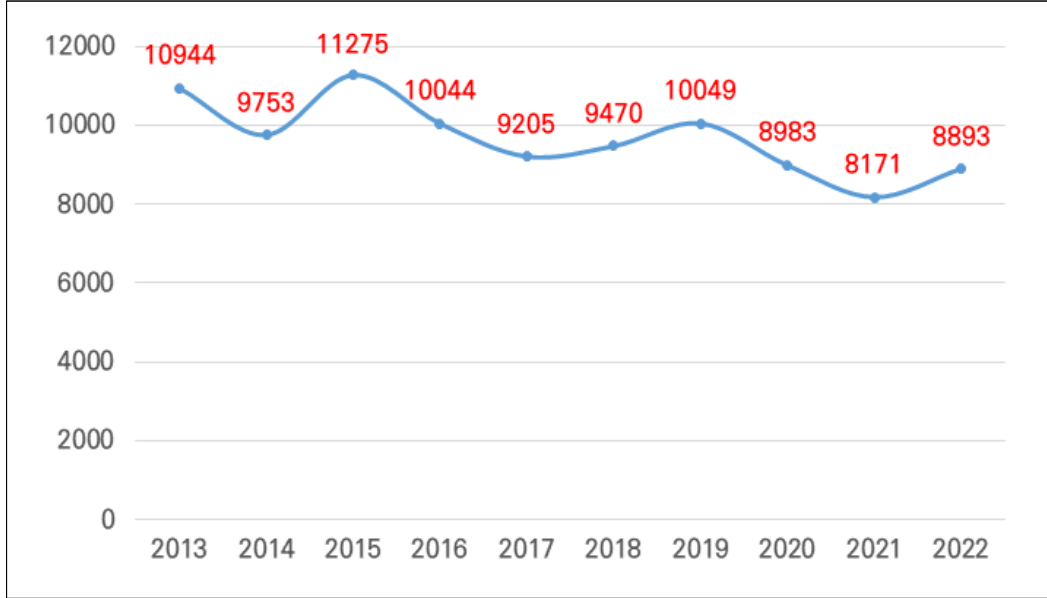


자료(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2013~2022, 2023.12.13,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인천형)

○ 2022년 기준 최근 10년간 절도 발생건수 및 추이는 다음과 같음.

[그림 4-11]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5대 주요범죄(절도) 발생 추이

(단위: 건)



자료(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2013~2022, 2023.12.13,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인천청)

[표 4-13]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관할서별 5대 주요범죄(절도) 발생건수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0944	9753	11275	10044	9205	9470	10049	8983	8171	8893
중부서	971	781	764	751	745	784	985	824	538	680
미추홀서 (남부서)	2023	1819	1690	1680	1637	1520	1748	1353	1315	1469
남동서	2062	1863	2187	1811	1388	1065	1079	1039	799	772
부평서	1404	1265	1223	1191	941	1059	1053	984	962	981
서부서	1507	1290	1434	1171	1196	1377	1325	1342	1504	1312
계양서	932	651	1116	852	820	754	732	756	661	735
강화서	154	102	139	120	104	133	169	130	146	175
연수서	765	848	1144	1060	838	841	1018	865	943	1226
삼산서	1126	1134	1578	1408	1342	1361	1333	1146	826	999
논현서	-	-	-	-	194	576	607	544	477	544

자료(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2013~2022, 2023.12.13,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인천청)

○ 최근 10년간 절도 발생 추이를 관할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4-12]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관할서별 5대 주요범죄(절도)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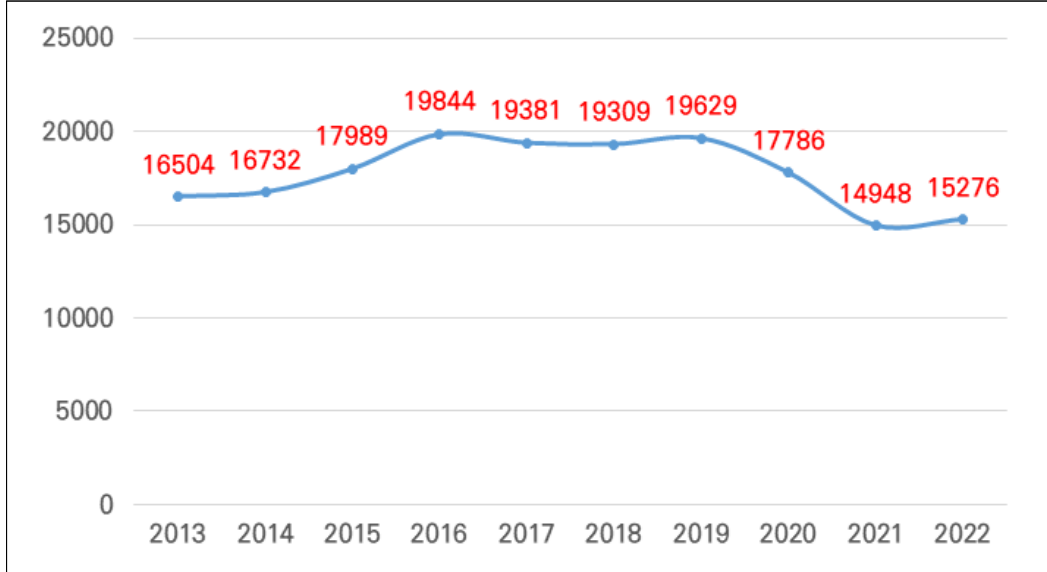
군·구	추이	군·구	추이																																												
중부서	<table border="1"> <tr><th>Year</th><td>2013</td><td>2014</td><td>2015</td><td>2016</td><td>2017</td><td>2018</td><td>2019</td><td>2020</td><td>2021</td><td>2022</td></tr> <tr><th>Value</th><td>971</td><td>781</td><td>764</td><td>751</td><td>745</td><td>784</td><td>985</td><td>824</td><td>538</td><td>680</td></tr> </table>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Value	971	781	764	751	745	784	985	824	538	680	계양서	<table border="1"> <tr><th>Year</th><td>2013</td><td>2014</td><td>2015</td><td>2016</td><td>2017</td><td>2018</td><td>2019</td><td>2020</td><td>2021</td><td>2022</td></tr> <tr><th>Value</th><td>932</td><td>651</td><td>1116</td><td>852</td><td>820</td><td>754</td><td>732</td><td>756</td><td>661</td><td>735</td></tr> </table>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Value	932	651	1116	852	820	754	732	756	661	735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Value	971	781	764	751	745	784	985	824	538	680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Value	932	651	1116	852	820	754	732	756	661	735																																					
미추홀서 (남부서)	<table border="1"> <tr><th>Year</th><td>2013</td><td>2014</td><td>2015</td><td>2016</td><td>2017</td><td>2018</td><td>2019</td><td>2020</td><td>2021</td><td>2022</td></tr> <tr><th>Value</th><td>2023</td><td>1819</td><td>1690</td><td>1680</td><td>1637</td><td>1520</td><td>1748</td><td>1353</td><td>1315</td><td>1469</td></tr> </table>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Value	2023	1819	1690	1680	1637	1520	1748	1353	1315	1469	강화서	<table border="1"> <tr><th>Year</th><td>2013</td><td>2014</td><td>2015</td><td>2016</td><td>2017</td><td>2018</td><td>2019</td><td>2020</td><td>2021</td><td>2022</td></tr> <tr><th>Value</th><td>154</td><td>102</td><td>139</td><td>120</td><td>104</td><td>133</td><td>169</td><td>130</td><td>146</td><td>175</td></tr> </table>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Value	154	102	139	120	104	133	169	130	146	175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Value	2023	1819	1690	1680	1637	1520	1748	1353	1315	1469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Value	154	102	139	120	104	133	169	130	146	175																																					
남동서	<table border="1"> <tr><th>Year</th><td>2013</td><td>2014</td><td>2015</td><td>2016</td><td>2017</td><td>2018</td><td>2019</td><td>2020</td><td>2021</td><td>2022</td></tr> <tr><th>Value</th><td>2062</td><td>1863</td><td>2187</td><td>1811</td><td>1388</td><td>1065</td><td>1079</td><td>1039</td><td>799</td><td>772</td></tr> </table>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Value	2062	1863	2187	1811	1388	1065	1079	1039	799	772	연수서	<table border="1"> <tr><th>Year</th><td>2013</td><td>2014</td><td>2015</td><td>2016</td><td>2017</td><td>2018</td><td>2019</td><td>2020</td><td>2021</td><td>2022</td></tr> <tr><th>Value</th><td>765</td><td>848</td><td>1144</td><td>1060</td><td>838</td><td>841</td><td>1018</td><td>865</td><td>943</td><td>1226</td></tr> </table>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Value	765	848	1144	1060	838	841	1018	865	943	1226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Value	2062	1863	2187	1811	1388	1065	1079	1039	799	772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Value	765	848	1144	1060	838	841	1018	865	943	1226																																					
부평서	<table border="1"> <tr><th>Year</th><td>2013</td><td>2014</td><td>2015</td><td>2016</td><td>2017</td><td>2018</td><td>2019</td><td>2020</td><td>2021</td><td>2022</td></tr> <tr><th>Value</th><td>1404</td><td>1265</td><td>1223</td><td>1191</td><td>941</td><td>1059</td><td>1053</td><td>984</td><td>962</td><td>981</td></tr> </table>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Value	1404	1265	1223	1191	941	1059	1053	984	962	981	삼산서	<table border="1"> <tr><th>Year</th><td>2013</td><td>2014</td><td>2015</td><td>2016</td><td>2017</td><td>2018</td><td>2019</td><td>2020</td><td>2021</td><td>2022</td></tr> <tr><th>Value</th><td>1126</td><td>1134</td><td>1578</td><td>1408</td><td>1342</td><td>1361</td><td>1333</td><td>1146</td><td>826</td><td>999</td></tr> </table>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Value	1126	1134	1578	1408	1342	1361	1333	1146	826	999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Value	1404	1265	1223	1191	941	1059	1053	984	962	981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Value	1126	1134	1578	1408	1342	1361	1333	1146	826	999																																					
서부서	<table border="1"> <tr><th>Year</th><td>2013</td><td>2014</td><td>2015</td><td>2016</td><td>2017</td><td>2018</td><td>2019</td><td>2020</td><td>2021</td><td>2022</td></tr> <tr><th>Value</th><td>1507</td><td>1290</td><td>1434</td><td>1171</td><td>1196</td><td>1377</td><td>1325</td><td>1342</td><td>1504</td><td>1312</td></tr> </table>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Value	1507	1290	1434	1171	1196	1377	1325	1342	1504	1312	논현서	<table border="1"> <tr><th>Year</th><td>2013</td><td>2014</td><td>2015</td><td>2016</td><td>2017</td><td>2018</td><td>2019</td><td>2020</td><td>2021</td><td>2022</td></tr> <tr><th>Value</th><td>194</td><td>576</td><td>607</td><td>544</td><td>477</td><td>544</td><td></td><td></td><td></td><td></td></tr> </table>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Value	194	576	607	544	477	544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Value	1507	1290	1434	1171	1196	1377	1325	1342	1504	1312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Value	194	576	607	544	477	544																																									

자료(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2013~2022, 2023.12.13,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인천청)

○ 2022년 기준 최근 10년간 폭력 발생건수 및 추이는 다음과 같음.

[그림 4-13]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5대 주요범죄(폭력) 발생 추이

(단위: 건)



자료(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2013~2022, 2023.12.13,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인천청)

[표 4-14]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관할서별 5대 주요범죄(폭력) 발생건수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6504	16732	17989	19844	19381	19309	19629	17786	14948	15276
중부서	1366	1492	1560	1772	1482	1601	1581	1502	1267	1367
미추홀서 (남부서)	2971	2875	3041	3431	3427	3196	3331	2767	2369	2380
남동서	3106	3124	3413	3833	3112	2509	2207	2073	1802	1551
부평서	1570	1569	1711	1738	1877	1870	1920	1795	1510	1510
서부서	2399	2575	2822	2700	2915	3055	3335	2883	2574	2876
계양서	1798	1645	1764	1985	1863	1900	1867	1734	1307	1271
강화서	324	345	337	398	372	403	343	299	298	339
연수서	1304	1325	1505	1616	1517	1383	1555	1531	1318	1370
삼산서	1666	1782	1836	2371	2535	2307	2316	2158	1624	1654
논현서	-	-	-	-	281	1085	1174	1044	879	958

자료(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2013~2022, 2023.12.13,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인천청)



○ 최근 10년간 폭력 발생 추이를 관할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4-14] 최근 10년(2013~2022)간 인천시 관할서별 5대 주요범죄(폭력) 발생 추이

군·구	추이	군·구	추이
중부서		계양서	
미추홀서 (남부서)		강화서	
남동서		연수서	
부평서		삼산서	
서부서		논현서	

자료(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2013~2022, 2023.12.13,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인천청)

○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중요범죄 건수를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4-15] 최근 10년(2013~2022)간 전국 중요범죄 발생건수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서울	368,583	355,991	356,575	343,104	320,193	308,997	309,269	296,178	257,969	279,507
부산	133,629	133,755	140,700	129,211	116,449	110,628	113,138	113,652	100,439	105,057
대구	96,186	95,753	98,897	86,150	75,016	72,341	75,797	72,373	67,915	66,786
<b>인천</b>	<b>95,270</b>	<b>94,210</b>	<b>99,915</b>	<b>100,387</b>	<b>91,385</b>	<b>86,391</b>	<b>90,608</b>	<b>88,143</b>	<b>76,584</b>	<b>82,397</b>
광주	67,969	64,822	61,234	54,271	48,213	43,569	44,274	43,517	39,392	38,900
대전	48,484	47,565	49,593	49,038	46,988	45,527	45,167	44,623	39,982	43,736
울산	40,848	41,167	44,569	39,799	34,912	32,764	32,780	31,381	29,085	27,286
세종	-	-	-	-	-	-	6,111	6,276	5,937	6,575
경기	401,963	404,390	430,790	476,348	417,066	388,938	394,276	394,226	357,243	364,534
강원	58,533	53,722	56,928	58,814	53,171	45,233	46,096	44,571	39,593	41,715
충북	52,065	50,857	53,703	56,179	50,387	48,315	48,085	47,864	43,397	44,055
충남	70,573	71,136	73,409	72,072	67,276	68,577	62,666	61,612	54,223	59,196
전북	59,906	56,642	57,342	53,375	48,979	47,944	48,252	47,446	43,650	45,199
전남	65,888	63,197	66,643	62,794	53,892	50,993	52,698	51,519	48,380	48,062
경북	98,162	88,938	91,876	88,059	80,061	74,356	77,449	73,762	65,553	66,928
경남	116,609	112,253	118,843	114,410	100,775	90,267	96,212	97,998	87,879	88,852
제주	31,223	31,254	33,819	35,003	31,368	27,427	26,090	27,129	25,515	26,103

주1) 경찰청, 해양경비 안전본부로 집계되는 중요범죄 발생건수 제외

자료(출처): 경찰청(수사운영지원담당관 키스운영계), 2022, 2023.12.26, 중요범죄발생및검거현황(시도)

○ 총 중요범죄 발생건수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광역시의 발생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4-16] 최근 10년(2013~2022)간 전국 대비 광역시 중요범죄 발생건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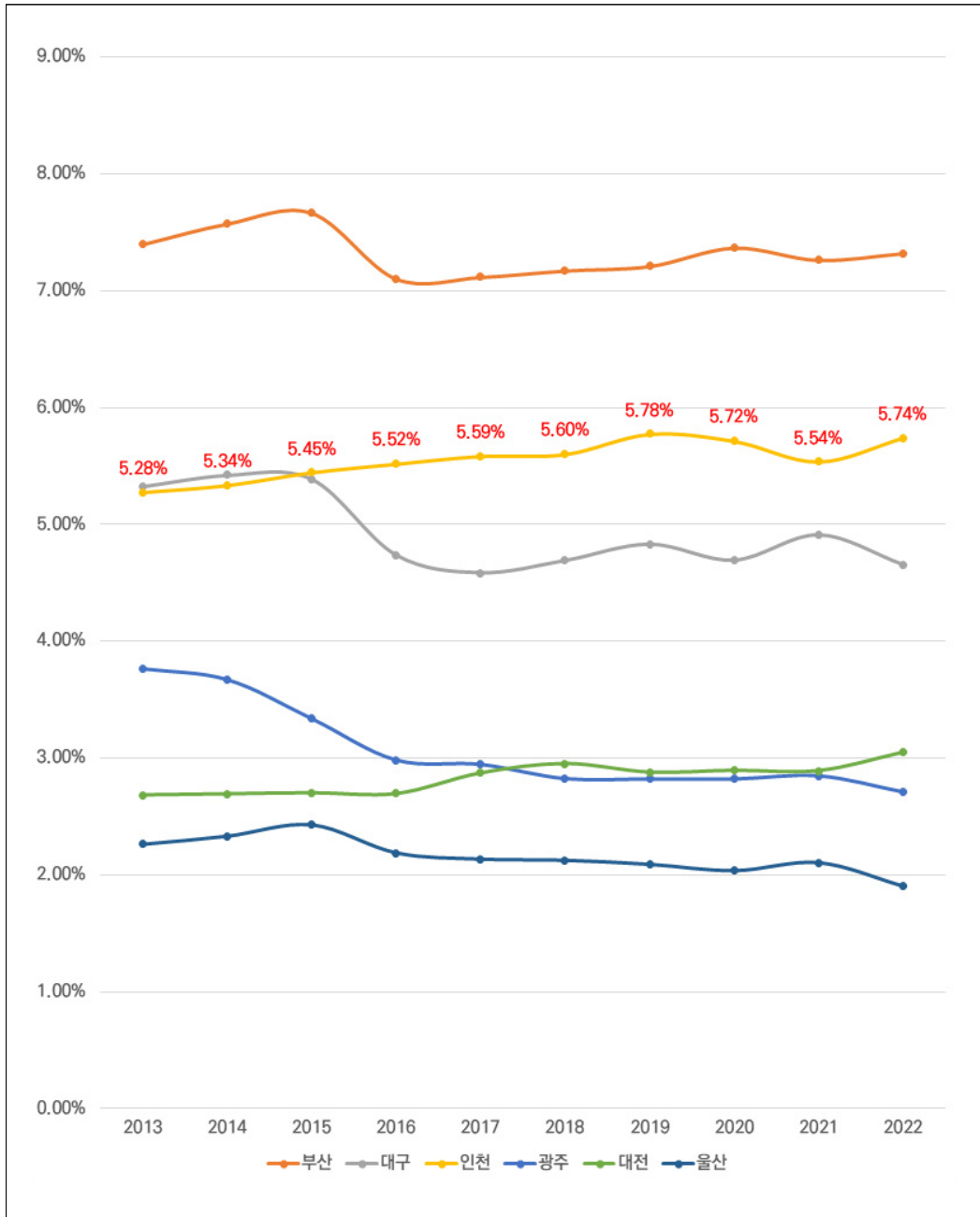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부산	7.40	7.58	7.67	7.10	7.12	7.17	7.21	7.37	7.26	7.32
대구	5.33	5.42	5.39	4.74	4.58	4.69	4.83	4.69	4.91	4.65
<b>인천</b>	<b>5.28</b>	<b>5.34</b>	<b>5.45</b>	<b>5.52</b>	<b>5.59</b>	<b>5.60</b>	<b>5.78</b>	<b>5.72</b>	<b>5.54</b>	<b>5.74</b>
광주	3.76	3.67	3.34	2.98	2.95	2.82	2.82	2.82	2.85	2.71
대전	2.68	2.69	2.70	2.70	2.87	2.95	2.88	2.89	2.89	3.05
울산	2.26	2.33	2.43	2.19	2.13	2.12	2.09	2.03	2.10	1.90

자료(출처): 경찰청(수사운영지원담당관 키스운영계), 2022, 2023.12.26, 중요범죄발생및검거현황(시도)

[그림 4-15] 최근 10년(2013~2022)간 광역시 중요범죄 발생건수 비중 추이

(단위: %)



자료(출처): 경찰청(수사운영지원담당관 키스운영계), 2022, 2023.12.26, 중요범죄발생및검거현황(시도)

- 6개 광역시 중 인천시와 대전시는 전국 대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부산시의 경우에는 2016년 큰 폭으로 비중이 감소하였다가 다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3) 체감안전도

○ 2023년 기준 최근 10년간의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4-17] 최근 10년(2014~2023)간 전국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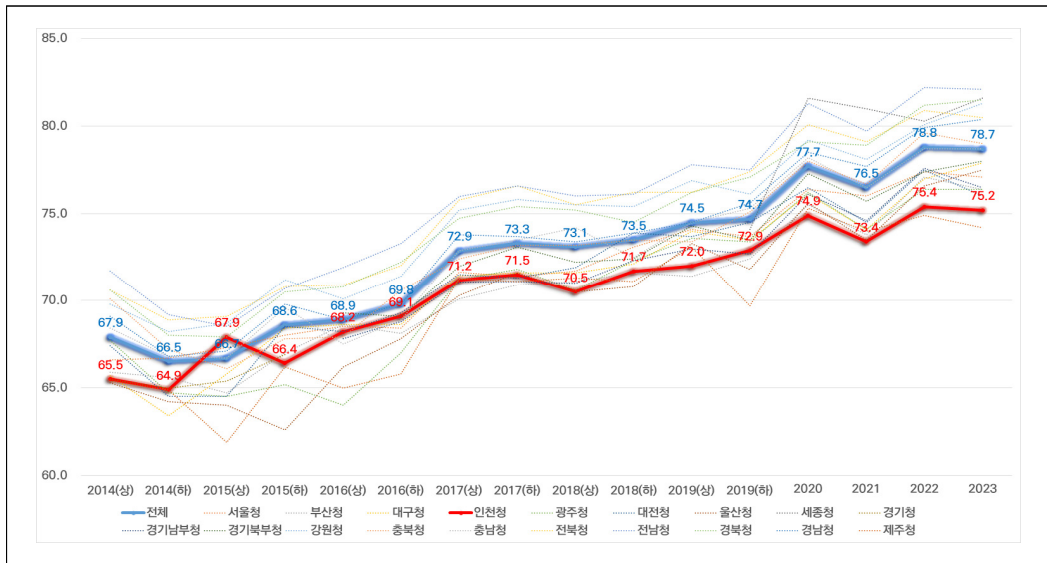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전체	67.9	66.5	66.7	68.6	68.9	69.8	72.9	73.3	73.1	73.5	74.5	74.7	77.7	76.5	78.8	78.7
서울	66.6	66.7	67.3	68.0	68.5	68.4	71.6	71.4	71.7	73.1	74.1	73.7	76.4	76.0	77.4	77.1
부산	65.9	65.6	64.7	67.0	68.6	68.1	70.1	70.9	71.1	71.6	71.4	72.4	75.5	73.8	77.1	76.4
대구	65.7	63.4	65.8	68.4	68.6	68.6	71.5	71.6	71.6	72.1	74.0	73.5	76.1	74.1	77.0	77.9
인천	65.5	64.9	67.9	66.4	68.2	69.1	71.2	71.5	70.5	71.7	72.0	72.9	74.9	73.4	75.4	75.2
광주	67.7	64.7	64.5	65.2	64.0	67.0	71.3	71.8	70.6	72.3	73.6	73.4	76.2	74.1	76.4	76.4
대전	67.4	64.5	64.5	68.5	68.2	69.3	71.5	71.3	71.9	73.9	73.7	74.5	76.5	74.5	77.5	76.0
울산	65.3	64.2	64.0	62.6	66.2	67.8	70.3	71.6	70.5	70.8	73.3	71.8	75.6	73.5	76.6	77.5
세종	-	-	-	-	-	-	-	-	-	-	-	74.1	81.6	81.0	80.3	81.6
경기	65.5	65.0	65.4	66.9	-	-	-	-	-	-	-	-	-	-	-	-
경기(남)	-	-	-	-	67.8	68.8	71.1	71.1	71.0	72.3	73.0	72.7	76.1	74.6	77.6	76.5
경기(북)	-	-	-	-	69.3	69.1	72.0	73.1	72.2	72.4	74.3	73.5	77.3	75.7	77.4	78.0
강원	69.8	68.2	68.7	71.2	70.1	71.4	75.2	75.8	75.5	75.4	76.9	76.1	79.2	78.1	80.1	81.3
충북	70.1	67.2	66.1	67.8	67.9	70.6	72.4	73.2	73.2	73.5	73.4	75.1	78.0	76.7	79.6	79.0
충남	68.4	66.8	66.7	69.6	67.5	68.9	72.9	73.5	74.2	72.5	74.5	75.3	78.2	76.5	78.7	78.7
전북	70.6	68.9	69.1	70.8	70.9	72.0	75.8	76.6	75.5	76.2	76.2	77.4	80.1	79.1	80.9	80.5
전남	71.7	69.2	68.5	70.7	71.9	73.3	76.0	76.6	76.0	76.1	77.8	77.5	81.3	79.7	82.2	82.1
경북	70.6	68.0	67.9	70.5	70.8	72.2	74.7	75.4	75.2	74.5	76.2	77.1	79.1	78.9	81.2	81.5
경남	69.1	66.8	67.1	69.8	68.9	69.8	73.8	73.7	73.4	73.9	74.5	75.6	78.5	77.7	79.9	80.4
제주	65.4	64.9	61.9	66.2	65.0	65.8	71.3	71.1	71.3	71.1	73.1	69.7	75.3	74.0	74.9	74.2

주1) 경기청은 2016년부터 경기남부청과 경기북부청으로 분리되었고, 세종청은 2019년 하반기부터 조사 시작  
 자료(출처): 경찰청 내부자료(2023. 12. 18.)

[그림 4-16] 최근 10년(2014~2023)간 전국 체감안전도 조사 종합점수 추이

(단위: 점)



자료(출처): 경찰청 내부자료(2023. 12. 18.)를 토대로 작성

○ 인천시의 체감안전도 종합점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지자체의 점수 또한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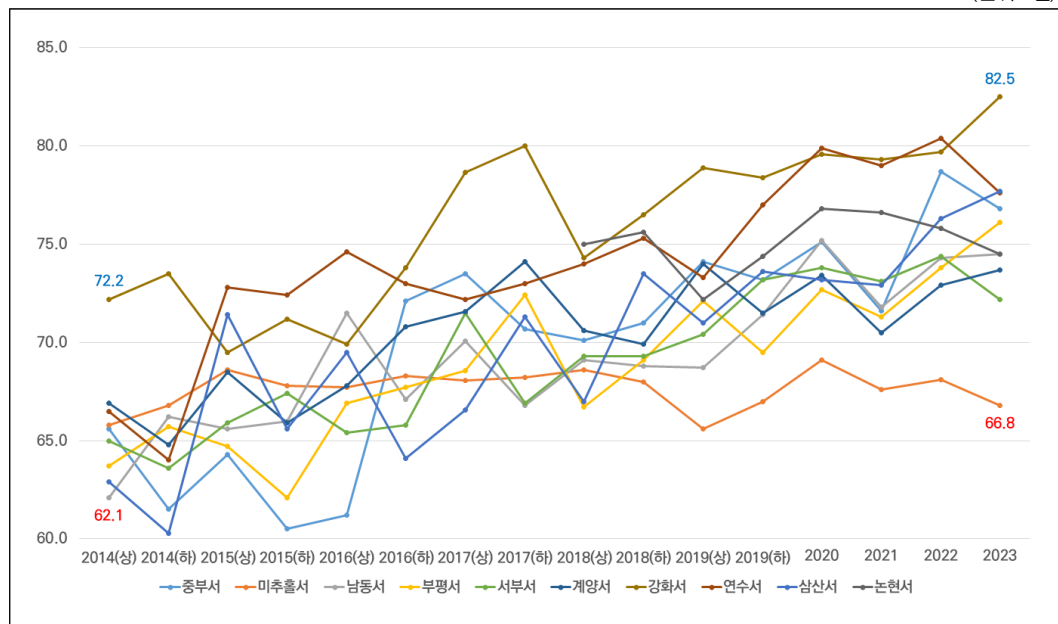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의 인천시 관할서별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4-18] 최근 10년(2014~2023)간 인천시 관할서별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종합) (단위: 점)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중부서	65.6	61.5	64.3	60.5	61.2	72.1	73.5	70.7	70.1	71.0	74.1	73.2	75.1	71.6	78.7	76.8
미추홀서	65.8	66.8	68.6	67.8	67.7	68.3	68.1	68.2	68.6	68.0	65.6	67.0	69.1	67.6	68.1	66.8
남동서	62.1	66.2	65.6	66.0	71.5	67.1	70.1	66.8	69.1	68.8	68.7	71.4	75.2	71.8	74.3	74.5
부평서	63.7	65.7	64.7	62.1	66.9	67.7	68.6	72.4	66.7	69.1	72.1	69.5	72.7	71.3	73.8	76.1
서부서	65.0	63.6	65.9	67.4	65.4	65.8	71.5	66.9	69.3	69.3	70.4	73.2	73.8	73.1	74.4	72.2
계양서	66.9	64.8	68.5	65.9	67.8	70.8	71.6	74.1	70.6	69.9	74.0	71.5	73.4	70.5	72.9	73.7
강화서	72.2	73.5	69.5	71.2	69.9	73.8	78.7	80.0	74.3	76.5	78.9	78.4	79.6	79.3	79.7	82.5
연수서	66.5	64.0	72.8	72.4	74.6	73.0	72.2	73.0	74.0	75.3	73.3	77.0	79.9	79.0	80.4	77.6
삼산서	62.9	60.3	71.4	65.6	69.5	64.1	66.6	71.3	67.0	73.5	71.0	73.6	73.2	72.9	76.3	77.7
논현서	-	-	-	-	-	-	-	-	75.0	75.6	72.2	74.4	76.8	76.6	75.8	74.5

주1) 논현서는 2018년 상반기부터 조사를 시작하였고, 2018년 하반기부터 남부서가 미추홀서로 변경  
 자료(출처): 경찰청 내부자료(2023. 12. 18.)

[그림 4-17] 최근 10년(2014~2023)간 인천시 관할서별 체감안전도 조사 종합점수 추이 (단위: 점)



자료(출처): 경찰청 내부자료(2023. 12. 18.)를 토대로 작성

#### 4) 범죄두려움

- 범죄두려움은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를 통하여 2년 단위로 조사 후 전국 결괏값을 공표하고 있음.
- 통계청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데이터를 2013년부터 격년 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적 두려움에 대한 최근 5회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19] 최근 5회(2013~2021) 전국 범죄두려움(일반적 두려움) 조사 결과

(단위: %)

구분	2013	2015	2017	2019	2021
전국	30.3	22.1	20.7	19.8	14.3

주) '두렵다'의 비율

자료(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2021, 2023.12.13,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

- 구체적 두려움은 총 세 개의 범죄유형별로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며, 최근 5회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20] 최근 5회(2013~2021) 전국 범죄두려움(구체적 두려움) 조사 결과

(단위: 점)

범죄유형	문항	2013	2015	2017	2019	2021
재산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2.31	2.21	2.19	2.09	2.13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	2.30	2.17	2.14	2.11	2.11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렵다	2.21	2.10	2.07	1.97	1.94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2.50	2.27	2.26	2.19	2.04
폭력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렵다	2.25	2.14	2.10	2.02	2.00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2.31	2.14	2.17	2.08	2.12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2.09	2.06	2.03	2.01	1.91
성폭력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2.15	2.01	2.01	2.01	1.95

주) 5점 척도 사용(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자료(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2021, 2023.12.13., 범죄유형별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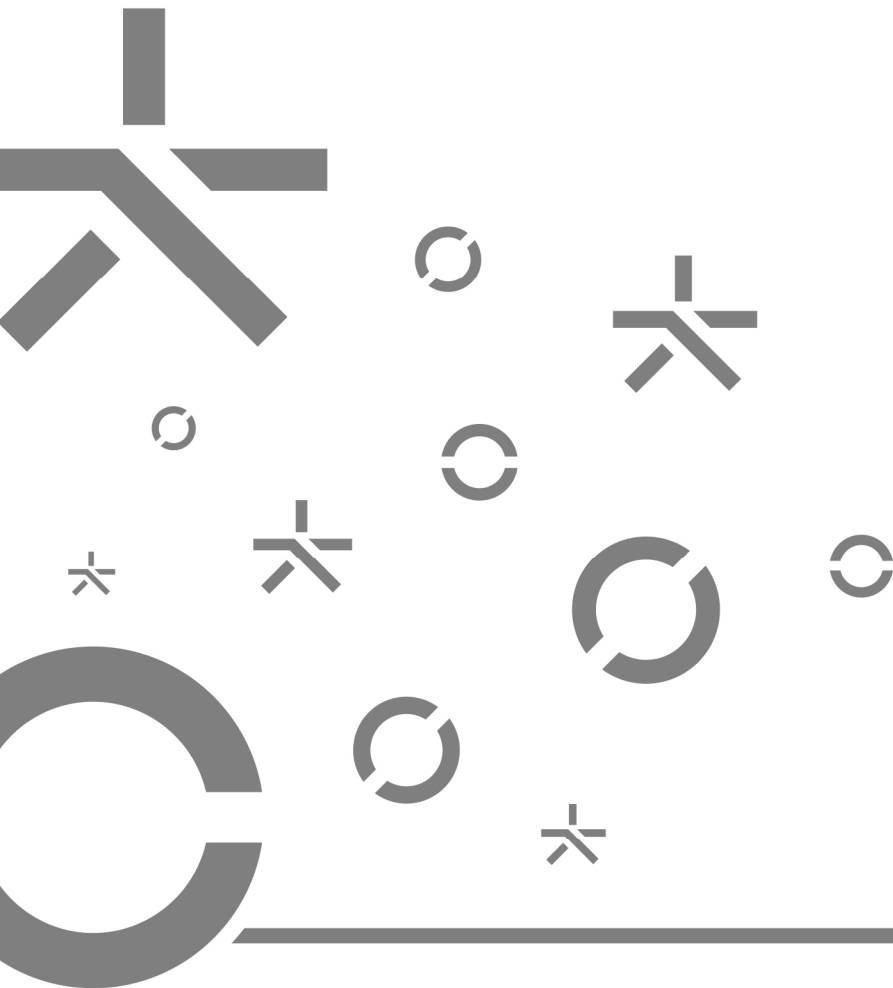
### 3. 소결

- 본 장에서는 인천시의 안전 현황을 지역안전지수, 범죄 통계, 체감안전도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음.
- 안전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은 사회집단과 자연집단의 안전 또는 위험 상황을 수치로 표현하여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perception)과 행태(behavior)에 영향을 주기 위함임(정지범, 2014).
- 앞서 살펴본 지표 중 일부는 실제 수치를 확인함으로써 위험에 대해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에의 영향이 반드시 안전한 행태로 이어진다고 담보할 수는 없음.
- 안전통계가 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안전인식이 안전행태로 연결되는 인과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연구들과 이러한 인과관계를 반증하는 연구들이 여전히 서로 대립하고 있음(정지범, 2014).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양한 지표들을 통하여 지역의 안전 현황을 파악하는 이유는 실제 수치로 보여지는 위험과 인식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문제에 접근하는 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편적 사고나 편견을 최소화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임.
- 지역안전지수를 통하여 확인한 인천시의 안전 현황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등급이 설명해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지역과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 내 군·구별 지역안전지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안전 현황의 격차를 정확히 인지하고, 각 도시의 성격에 맞는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5년간 계속해서 범죄 분야 4등급을 받고 있는 미추홀구와 부평구에 대한 접근방식과 최근 5년 중 4년간 4등급을 받은 강화군에 대한 접근방식은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함.

- 지역안전지수의 위해지표를 구성하는 5대 주요범죄 통계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지역에서 확인되는 최근 10년간의 범죄 트렌드를 이해하고 선제적인 예방 차원의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5대 주요범죄를 구성하는 개별 범죄유형이 수치상 줄어들고 있다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전국 대비 지역의 발생건수 비중을 확인하여 문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표4-15], [표4-16], 그리고 [그림 4-1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시의 수치만을 놓고 봤을 때는 중요범죄 발생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발생건수가 전국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의 감소추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떠한지 비교를 통하여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체감안전도는 3장에서 간략히 논의한 바와 같이 개념과 측정에 있어서 합의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관계로 활용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인천시의 체감안전도 조사 종합점수는 매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점수의 절댓값은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체감안전도에 대한 다양한 비판 중 하나로 제기되는 설문 문항의 잦은 변경에 따라 점수의 절댓값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른 지역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특히, 인천시 내의 10개 관할서 중 미추홀서의 경우, 다른 관할서가 절댓값에 있어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하여 최근 10년간 60점대 중후반에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점과 2023년 결괏값이 최하위이면서 가장 높은 지역과(강화서)는 15.7점 차이, 평균값과도 8.4점 차이가 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도시에 대한 이론적 차원의 이해를 토대로 도시의 안전도 진단을 위해 활용되는 주요 지표들을 통해 인천시의 안전 현황을 살펴보고, 안전도시로서 인천시의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인천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에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제2장에서는 도시의 정의 및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 중 도시경쟁력, 도시이미지, 그리고 도시마케팅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고, 제3장에서는 안전 측면에서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 안전도시와 관련된 논의와 도시의 안전도를 점검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주요 안전 지표들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제4장에서는 인천시의 기본 현황 및 안전 현황을 정리·분석하였음.
- 특히,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본 연구가 기존의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하였는데, 안전을 개별적인 요소로 놓고 접근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도시경쟁력의 관점에서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이자 도시를 지탱하는 근간으로서 안전을 바라보고자 시도하였음.
- 본 장에서는 앞서 논의하고 검토한 이론적·실체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안전도시로서의 이미지와 실재(實在)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현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진단을 통해 도출한 주요 쟁점을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며, 연구의 한계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후속 연구과제를 발굴·제안하고자 함.

# 1. 진단

- 객관적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인천시의 전반적인 안전 현황은 안전도가 낮다고 평가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인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가 보여주는 것처럼 생활안전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등급이 대부분 2등급을 기록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범죄 분야도 2021년까지 지난 4년간 3등급을 유지해오다가 2022년 2등급으로 상향되었음.
- 그러나 지역안전지수의 높은 등급이 지역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되기에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범죄와 관련한 주요 지표를 살펴본 결과, 지역안전지수의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과 달리 개별 지표들을 통해서는 범죄 분야의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인천시만을 놓고 봤을 때 주요 범죄 통계는 소폭이나마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들 또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감소의 추세선은 오히려 인천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완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인천시 내 군·구별로 안전 현황에 있어서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실제 안전 관련 지표의 격차보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다양한 격차 문제는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문제만 국소적으로 바라보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첫째, 인천시는 안전한 도시지만 잘못 형성된 도시이미지로 인해 오명을 쓰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 둘째, 지나친 ‘스포트라이트 효과(spotlight effect)’<sup>7)</sup>를 극복하고 인천시만의 도시경쟁력 제고 전략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7) 연극에서 유래한 용어로 심리학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며, 타인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하여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는 심리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됨

## 2. 제언

-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전략은 도시를 어떻게 브랜딩하고 마케팅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도시의 정체성을 분석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앞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마케팅의 전략 유형은 강화형 전략, 변화형 전략, 창출형 전략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존 이미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단순히 안전 분야에만 국한하여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 따라서 안전도시 인증과 같은 안전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한 도시관리 차원의 안전 패러다임에서 전반적인 도시경쟁력 제고 차원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즉,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인증받기 위해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 중 하나로 안전을 관리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함.
- 실제 안전도시 인증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의 경우, 국내 다수의 도시가 참여하여 인증받아 활동하고 있고, MCR 캠페인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인천시와 울산시가 롤모델 도시로 인증받아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도시경쟁력 평가체계에서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국내 도시는 서울시가 거의 유일함.
- 안전도시 인증과 도시경쟁력 평가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전자의 경우는 신청에 따라 평가받는 시스템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신청과 상관없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며, 이는 안전도시 관련 인증사업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충분한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음.
- 중국사회과학원, 모리기념재단, Mercer, AT Kearney, EIU, Arup 등에서 실시하는 도시경쟁력 평가체계의 지표를 분석해보면, 실제 안전과 관련한 세부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지표들이 도시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제활동 안정성 등 다양한 지표들과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

- 따라서 안전 측면에서의 도시이미지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단편적으로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도시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계획 수립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실재(實在)와 체감안전 사이의 간극에 과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안전에 대한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안전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안전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등급이 낮은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는데,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는 범죄 분야보다 실제 시민들의 삶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불안 요소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기초질서의 확립 노력 및 유관기관의 안전 개선 노력의 시각적 노출에 의한 효과성을 검토하여 강화하여야 함.
- 연구 내용 및 진단을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1) 범죄 예방과 관련한 중앙부처 지원사업 참여 및 광역자치단체 자체 사업의 추진

- 수원시의 경우, 오원춘 사건(2012), 박춘풍 사건(2014) 등 연달아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지역안전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이 낮아져 도시이미지가 손상됨에 따라 시민 안전도 제고와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다양한 안전개선사업을 전개하였고, 경기도 및 수원시의 자체적인 사업 외에도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전승민, 2023).
- 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안전개선을 위한 시의 노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각적 요소를 강조하여 불안감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음.
- 실질적 안전도는 유관기관(경찰, 소방 등)과 협력하여 개선을 시도하고, 체감안전도 제고를 위해 시민들에게 “시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টে을 발굴하여 현장에 적용하였음.

- 실제 안전 관련 지표와 체감안전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간격을 좁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 도시재생 연계 테마형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브랜드화

- 대전시의 경우 원도심의 쇠퇴와 공동화에 따른 노후환경 개선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과 연계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진행하였음(이형복, 2023).
- 범죄로부터 지역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9년 안전브랜드(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음(대전광역시 보도자료, 2019).

[그림 5-1] 대전광역시 안전브랜드 상표등록증



자료(출처): 대전광역시 보도자료(2019)

- 사업의 내용은 일반적인 CPTED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도시재생과 연계한 테마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브랜드화 작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도시이미지 개선에 대한 안전브랜드 개발 및 적용 효과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 도시경쟁력 평가체계 내 안전 관련 지표 개선 노력

○ 주요 도시경쟁력 평가체계에서 다루고 있는 안전 관련 지표는 다음과 같음.

[표 5-1] 글로벌 도시경쟁력 평가체계의 안전 관련 지표

평가주관	지수명	분야	분야별 지표
모리재단	Global Power City Index	거주적합성	안보와 안전(살인 건수, 자연재해의 경제위험)
Mercer	Quality of Living Index	자연환경	기후, 자연재해 빈도와 피해 지표
		정치·사회적 환경	범죄율, 법집행
EIU	Green City Index	사회안전	경범죄 및 폭력범죄 출현율, 테러 위험, 군사적 충돌 위험 등
Arup	City Resilience Index	경제와 사회	종합적인 보안과 범죄 지표(범죄 차단 시스템, 치안활동, 민·형사법의 정의구형)
		리더십과 전략	이해당사자 참여 강화(교육, 재난위험에 대한 공동체 인식 및 준비, 공동체와 도시정부의 효과적 공조 구조)

자료(출처): 변미리 외(2021)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

○ 도시이미지 개선이 궁극적으로는 도시경쟁력 강화에 수렴한다고 했을 때, 글로벌 도시경쟁력 평가체계에서 다루고 있는 안전 관련 지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오윤경, 2023).

### 3. 한계 및 후속 과제

○ 본 연구는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범죄 분야 컨설팅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라는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 연구의 깊이에 큰 격차가 존재할 수 있고, 또한 대부분의 컨설팅 연구가 그러하듯 지표에 대한 단순 나열식 분석의 제시가 가지는 방법론적 한계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도시를 유기체로 바라보며 도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가지는 차별성이 있음.

○ 다만, 이러한 차별성이 반드시 바람직한 연구성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 연구의 특성상 문헌 중심의 검토만으로는 심도 있는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또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특히, 도시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 관련 통계의 결핍이 아닌 지표 자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한계를 노출하였음.



- 또한, 연구수행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인식하게 되면서 단순히 안전 관련 이미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선 전략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가 초기에 목적했던 바를 구체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음.
- 이러한 한계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을 통하여 추후 새롭게 또는 확장하여 수행하여야 할 후속 연구과제를 발굴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1) 안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단위 안전통계 관리 방안 연구

- 지역의 안전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안전지수와 같은 등급 자체를 보기보다는 지수를 구성하거나 지수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중요하게 다뤄야 할 안전통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안전통계와 관련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통계 자체에 관한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통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임.
- 두 가지 연구는 사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통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활용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임.
- 다만, 지역단위 연구의 측면에서 볼 때, 안전 사각지대 발굴·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역단위 통계의 미비, 현장 활용성이 강화된 시스템의 미구축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활용방안 중심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 체감안전도 조사를 위한 재난안전 의식조사 설문 문항의 개발·적용 및 분석 연구

- 안전통계와 안전인식, 그리고 안전행태가 갖는 영향력의 방향과 인과관계의 성립 여부는 여전히 학문적 검증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안전인식이 시민들의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체감안전도나 범죄두려움 관련된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음.
- 다만, 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감안전도 조사는 경찰 조직 내 성과평가의 수단으로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내재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이를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의식조사의 문항을 개발할 때 체감안전도를 함께 측정할 수 있도록 개념 및 측정에 관한 선행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주제어 ▶ 안전도시, 도시이미지, 도시마케팅, 지역안전, 범죄안전

## 참고문헌

### ■ 단행본/연구보고서

- 강승호, & 김중엽. (2009). 인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16.
- 김동현 외. (2016). 도시의 기후 회복력 확보를 위한 공간단위별 평가체계 및 모형 개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김현주. (1997). 세계 도시경쟁력 비교. 삼성경제연구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4). (새로운 도시) 도시계획의 이해. 보성각.
- 문경원. (2013). 도시이미지 활용을 통한 도시마케팅 전략. 대전발전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3-04.
- 박재길, 김현식, 김광익, 이왕건, 변필성, & 황승미 외. (2005).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변미리, 이민규, 박민진, 박은현, 탕웨이, & 김지영. (2021). 도시경쟁력 진단에 근거한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 서울, 베이징, 상하이, 도쿄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1-113.
- 신상영, 조권중, 이석민, & 이윤상. (2015). 서울형 안전도시 모델 모색.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1-43.
- 신진동, 박소연, 유나겸, 김성수, 이동규, & 손지현. (2022). 지역 안전의식 수준 측정기술 실용화 연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안혁근, 정지범, & 김은성. (2009). '안전한 나라 만들기' 위한 안전도시모델 개발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유승권. (2006). 도시 마케팅의 이해. 한솜미디어.
- 이무용. (2006).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소마케팅 전략. 논형.
- 이성근, 이관률, 서경규, 김상곤, & 안성조. (2021). 최신 지역개발론. 집현재.
- 임재현. (2023).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 정지범. (2014).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보고서 2014-20.
- 정진호. (1995).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가형 지방경영. 한국경제연구원.
- 행정안전부, & 한국행정연구원. (2018). 2018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사업 보고서.
- Ashworth, G. J., & Voogd, H. (1990). Selling the city: Marketing approaches in public sector urban planning. Belhaven Press.
- Boorstin, D. J. (1962). The Image, A Guide to Pseudo-Event in America New-York: Harpers & Row.

- Boulding, K. E. (1956). *The Image: Knowledge in Life and Society*.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Ferraro, K. F. (1995).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Jackson, J. (2004). *Experience and expression: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nce in the fear of crime*. London.
- Kotler, P. (1982). *Marketing Management: Analysis, Planning, Implementation and Control*, 6th ed., Prentice-Hall.
- Kotler, P. (1986). *Principles of Marketing*, Prentice-Hall.
- Lynch, K. (1960). *The Image of the C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Rockefeller Foundation and ARUP. (2014). *City resilience Framework*(April 2014).

## ■ 학술지/학위논문

- 강창현, & 문순영. (2017). 국내 안전도시 연구동향과 쟁점: 2006-2016 학술지 수록연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6(1), 119-156.
- 권재경, & 최원수. (2012). 도시이미지 유형에 따른 도시브랜드 정체성 형성의 영향요인.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0(4), 15-26.
- 김남정. (2005). 도시브랜드 이미지의 구성요소와 영향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원배. (1997). 도시경쟁력의 개념과 강화전략의 틀, 「국토」, 193:6-13.
- 김정호. (2013). 창조도시의 도시경쟁력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6(1), 219-240.
- 김훈, & 송윤환. (2007). 도시이미지 결정요인과 도시규모별 이미지 결정요인 비교. *국제지역연구*, 11(1), 562-586.
- 노성호, & 신소라. (2020). 범죄 두려움의 개념정의와 척도에 대한 검토. *한국범죄심리연구*, 16(4), 67-84.
- 변미리. (2014). 도시경쟁력과 문화가치. *문화정책*, (1), 115-142.
- 서용모, 천명환, & 김형준. (2010). 도시 정체성을 통한 도시마케팅 전략 도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6), 297-306.
- 송창영. (2020).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전지수 향상방안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6(2), 211-222.
- 안승현. (2020). 굿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안전개선사업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재경, & 최이문. (2023). 범죄두려움 측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정서와 인지적 평가로서의 범죄두려움. *형사정책연구*, 34(1), 105-140.
- 양문승, & 김자은. (2010).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5(2), 261-296.
- 이무용. (2003). 장소마케팅 전략에 관한 문화정치론적 연구-서울 홍대지역 클럽문화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무용. (2006). 장소마케팅 전략의 문화적 개념과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41(1), 39-57.
- 이병도, 김종길, & 유영현. (2015). 주민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층모형분석: 범죄취약성과 사회해체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2(4), 49-70.
- 이병도. (2022). 자치경찰로의 변화에 따른 치안만족도 혁신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4(5), 73-104.
- 이수범, 신성혜, & 최원석. (2004). 시민관계성이 도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15(1), 7-31.
- 이우종, & 김남정. (2005). 도시브랜드 이미지의 구성요소와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0(6), 177-192.
- 이희연. (2005). 세계화시대의 지역연구에서 장소마케팅의 의의와 활성화방안.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2), 35-54.
- 임창호. (1995). 역사공간 및 건축물의 보존에 관한 도시이미지 창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30권 324호, pp. 42-54.
- 정재훈, & 이병도. (2017). 체감안전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9(1), 121-148.
- 정철우. (2015).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교통 체감 안전도 변화 분석. *치안정책연구*, 29(2), 223-247.
- 최유진, & 홍준현. (2007). 도시경쟁력 관점에서의 통합시 유형화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21, 65-92.
- 최재현. (2005). 세계화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2), 1-18.
- Farrall, S. & Gadd, D. (2004). The frequency of the fear of crim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4, pp.127-132.
- Ferraro, K. F., & LaGrange, R. L. (1987). The Measurement of Fear of Crime. *Sociological Inquiry*, 57(1), pp.70-97.
- Garofalo, J., & Laub, J. (1978). The fear of crime: Broadening our perspective. *Victi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3, pp.242-253.

- Griffiths, R. (1995). Cultural strategies and new modes of urban intervention. *Cities*, 12(4), 253-265.
- Hough, M. (2004). Worry about crime: mental events or mental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7(2), pp.173-176.
- Jackson, J. (2011). Revisiting Risk Sensitivity in the Fear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8(4), pp.513-537.
- Krugman, P. (1996). Making Sense of the Competitiveness Debate,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12: 483-499.
- Lever, W. F., & Turok, I. (1999). Competitive Cities: Introduction to the Review, *Urban Studies*, 36(5-6): 791-793.
- Pleysier, S. (2009). 'Angst voor Criminaliteit' Onderzocht. De Brede Schermerzone Tussen Alledaagse Realiteit en Irrationeel Fantoom. Faculty of Law, Research Unit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Leuven Institute of Criminology. Leuven: Catholic University of Leuven. PhD Thesis.
- Porter, M. E. (1995).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the Inner City, *Harvard Business Review*, May/June, pp. 55-71.
- Sassen, S. (2002). Global cities and diasporic networks: Microsites in global civil society. *Global civil society*, 2002, 217-240.
- Warr, M. (1987). Fear of victimization and sensitivity to risk.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1), pp.29-46.
- Webster, D., & Muller, L. (2000). Urban competitiveness assessment in developing country urban regions: The road forward. Urban Group, INFUD.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July, 17, 47.

## ■ 행정자료

- 경찰청 내부자료. (2023).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2014~2023).
- 인천광역시. (2023). 제62회 인천광역시통계연보(2022).
- 행정안전부. (2022a). 2021 재난연감.
- 행정안전부. (2022b). 2021 재해연보.

## ■ 보도자료/신문기사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2019. 12. 29.). 시 안전브랜드 상표등록, 범죄예방 환경 조성 박차([https://www.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boardId=normal\\_0189&menuSeq=1632&ntatcSeq=1324998275](https://www.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boardId=normal_0189&menuSeq=1632&ntatcSeq=1324998275)), 검색일: 2023. 12. 28.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9. 7. 4.). ‘안전·안심·안정’ 중심의 안전도시 만든다([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8&nttlId=26579](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8&nttlId=26579)), 검색일: 2023. 12. 22.

## ■ 전자문서자료/홈페이지

행정안전부. (2023). 지역안전지수. <https://www.mois.go.kr/frt/sub/a06/b10/safetyIndex/screen.do>(검색일: 2023년 12월 22일).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인천)”.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16&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N216&conn_path=I2)(검색일: 2023년 12월 13일).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3&tblId=DT\\_40301N\\_02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3&tblId=DT_40301N_021&conn_path=I2)(검색일: 2023년 12월 13일).

“범죄유형별 두려움”.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3&tblId=DT\\_40301N\\_A018&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3&tblId=DT_40301N_A018&conn_path=I2)(검색일: 2023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용도지역 현황(2021)”.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55213/fileData.do#tab-layer-file>(검색일: 2023년 8월 18일).

“전국사업체조사(2021)”.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52D0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52D01&conn_path=I2)(검색일: 2023년 8월 18일).

“중요범죄발생및검거현황(시도)”.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32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321&conn_path=I2)(검색일: 2023년 12월 26일).

“지역소득(2012-2021)”.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C8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C81&conn_path=I2)(검색일: 2023년 8월 18일).

## ■ 인터뷰, 개인소장자료 등

오윤경. (2023년 11월 10일). 대면 인터뷰.

이형복. (2023년 11월 20일). 대면 인터뷰.

전승민. (2023년 11월 9일). 대면 인터뷰.





2023년도 센터기획연구

## 인천 안전도시 이미지 강화 정책 방안 - 범죄 분야를 중심으로 -

---

발행인 박호군

발행일 2023년 12월 29일

발행처 인천연구원

인쇄처 032디자인(주) 032-777-7032

I S B N 979-11-6870-211-0 93350

주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

© 인천연구원 202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연구원의 공식적 입장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